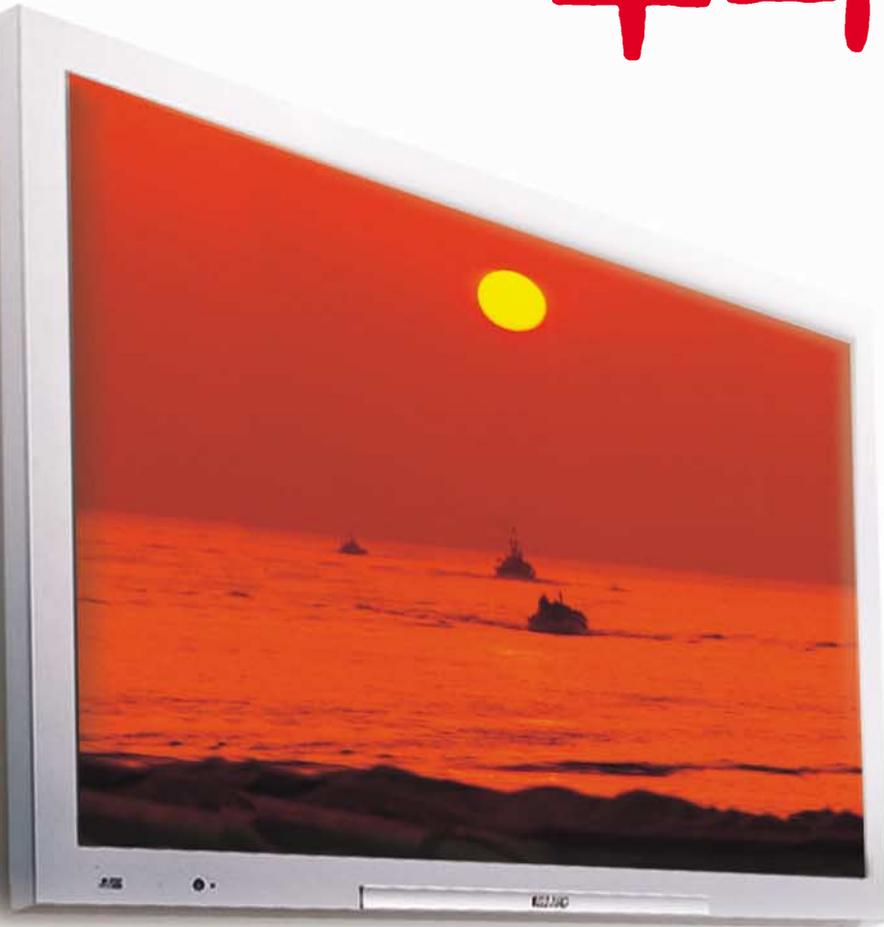


우리문화



문화논단 | 전통문화!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길라잡이 할 것인가?

신년특집 | 실버들이어! 전통문화로 인생 2막을 열자

문화행사 | 서원 한 바퀴 도니 선비정신 '저절로', 난생 처음 콩타작하며 '까르르'

문화 CEO | 민속예술품 수집광 김순진 (주)놀부 대표이사

겨울사냥 | 돌담길 끝에 아스라한 향수 - 옛 향 가득한 민속마을을 찾아서

우리영화 | '왕의 남자'



2006 - 1.2
VOL. 180
전국문화원연합회



새해기도

가정에는 안녕을, 이웃에는 사랑을, 나라에는 평안을.
새해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늘지고, 어둡고, 외로운 이웃을 위하여
문화의 텃밭을 일구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새해 기도 드립니다.

권용태 現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재추대

지난 1월 25일(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권용태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그리고 감사에는 윤수옥 현 감사가 유임되고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이 새로 선임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 16개 시·도지회장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9명의 이사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부회장에는 이선재(마포문화원장) 허문명(인천시지회장, 부평문화원장) 최중수(과천문화원장) 박영수(충북도지회장, 청주문화원장) 등 4명과 이사에는 김 종(광주 서구문화원장) 김형순(동해문화원장) 이진재(예산문화원장) 김복현(익산문화원장) 채대진(문

경문화원장) 홍관표(김해문화원장) 등 6명을 선임하고 이를 각 지방문화원장에게 통보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1월 13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2006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며 신규 회원으로 서울 구로문화원과 대구 수성문화원, 인천 계양문화원이 가입 승인됨으로써 총 224개 지방문화원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됐다.

이 밖에도 2006년 복지기금 및 회관건립기금 운영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52면〉

전국문화원연합회 ‘땡땡땡 실버문화 학교’ 열어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복권기금 지원으로 대전 등 전국 10개 문화원에서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 시범사업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통합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시행됐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개했다.

〈관련기사 5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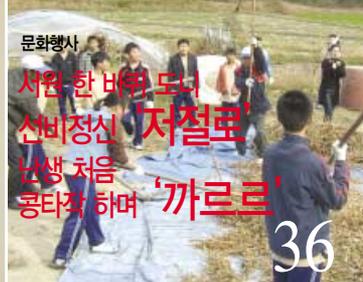
문화관광부, 2006년도 문화관광 축제 선정

문화관광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등 5개 축제를 2006년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등 9개 축제는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대구약령시축제’ 등 13개 축제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평창효석문화제’ 등 25개 축제가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5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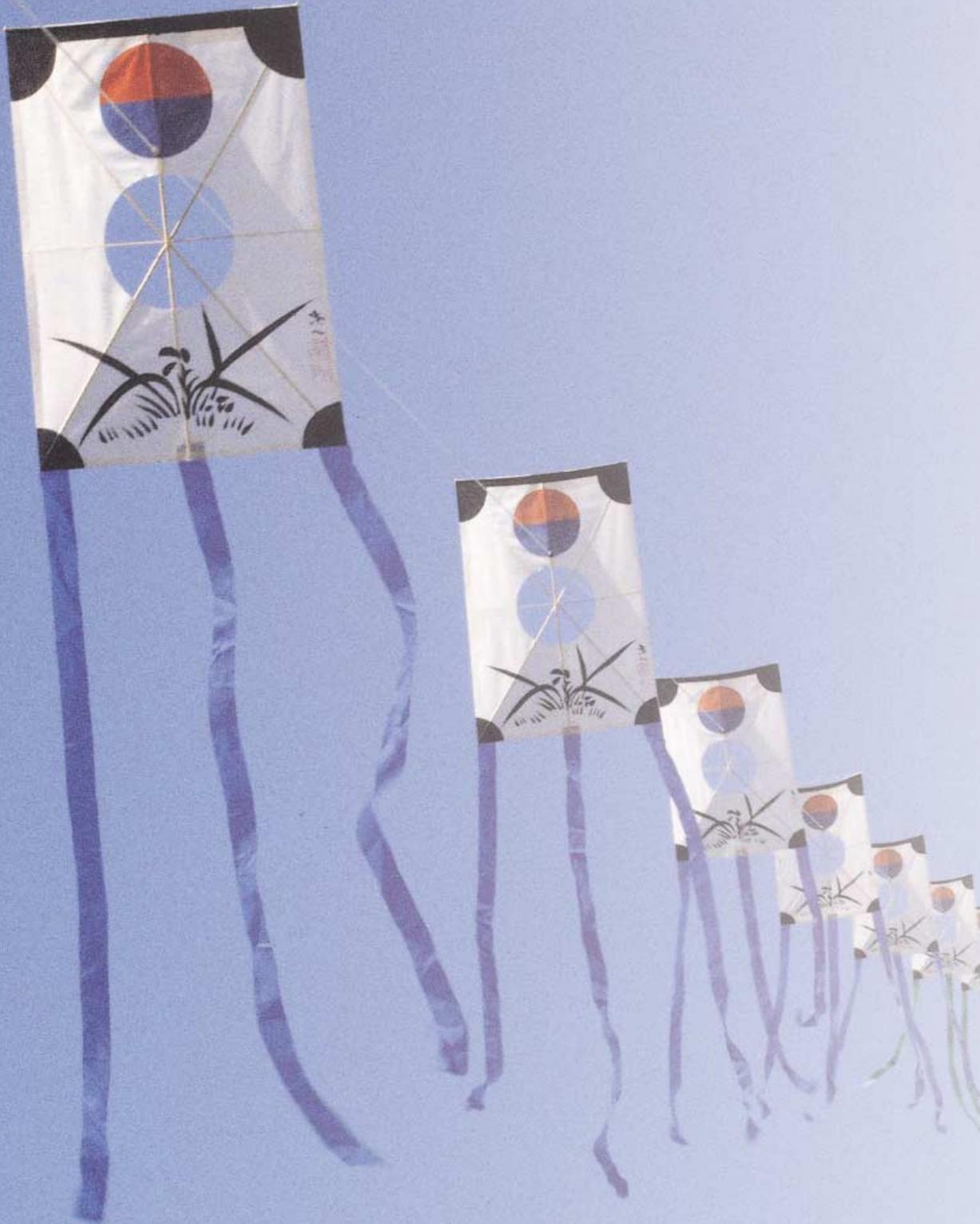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Contents

January · February 2006 _ Vol 180

4	신년사	대표적 브랜드로 지역문화 특성화 시켜야
6	문화논단	전통문화,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길라잡이 할 것인가?
14	만화	한류, 당신은 누구세요?
16	신년특집	실버들이여! 전통문화로 인생 2막을 열자
28	지역따라 노래따라	단장의 미아리 고개
32	온고지신	토정은 조선시대 '빈민운동가'
33	시 한편	봄을 기다리며
34	화보	봄마중
36	문화행사	서원 한 바퀴 도니 선비정신 '저절로' ...
40	명품순례	대견한 3대 명犬 진돗개 · 삼살개 · 풍산개
44	문화 CEO	"한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48	너와 나	"통일의 다리는 뭐니뭐니해도 문화예술"
52	문화뉴스	전국문화원연합회 임원 선출 등
60	문화탐방	'고창의 정신과 역사를 한 눈에'
62	겨울사냥	옛 향 가득한 민속마을을 찾아서
66	우리영화	'왕의 남자'
68	책꽂이	화성음사 등
72	우리말 우리속담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된다.



“대표적 브랜드로 지역문화 특성화시켜야”

지방문화 진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문화가족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을 모두 이루어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도시와 농촌, 계층과 세대간, 그리고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워 나가야 할 책무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문화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의 문화사업은 지방문화원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오늘날 각 지역마다 자생적 문화단체와 시민단체의 영역확대는 물론, 중앙 정부 권한의 시·도 이양 등으로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이제까지의 외형적, 양적 성장에서 내실 위주의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지역마다 역동적이고 경륜 있는 문화지도자들이신 원장님들이 나서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문화원의 운영 전반을 재조명하고 잠재적 성장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문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문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지역문화 진흥의 엄연한 주체이며 구심력으로서 지역의 시대가 부르는 문화적 소명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여가문화의 확산을 비롯 고속철의 신설, 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지역문화 특성화를 얘기해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방문화원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성화시키는 일에 열정을 쏟아 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시대에 상응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디지털 콘텐츠인 홈페이지를 갖지 못한 문화원이 많은 실정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적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 역점 과제로 문화원 인터넷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해에도 복권기금 및 관광기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거점센터로 특화시켜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실행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 새터민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문화적인 동질감을 심어줌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16개 시·도지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문화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추진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길라잡이 할 것인가?

머리말

최근 들어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을 문화산업시대라고도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올바른 가치와 생산적인 문화산업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와 문화산업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문화산업은 관광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화를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족시켜주며,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문화와 관련된 곳으로 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문화산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傳統文化이다.

傳統文化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有形·無形의 모든 所産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전통문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알릴 때 전통문화는 생동하는 새로운 문화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

1. 의미

흔히 문화는 내적, 정신적, 비가시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문명은 외적, 물질적, 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넓은 뜻에서 한 사회 성원들이 집단체함을 통하여 우리나라 생활양식, 행동원리, 사고방식 및 그 결과로 나타난 산물로서 기술과 인공물을 포함하는 총체를 말한다. 또한 문화는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지어 영속시키고자 했던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傳統은 민족문화에 있어서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꿰어지는 문화적 바탕 또는 그 맥락이다. 傳統文化는 그 범위가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과거가 되고, 공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이 된다. 전통문화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형성한 것이며, 한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사고 유형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

이 공유한 사고와 행동 양식이다. 그래서 전통문화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계층마다 다를 수 있고, 신분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전통문화 중에서도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인 문화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유산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조상들의 혼과 힘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며, 그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통하여 과거를 알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역사를 말해주며, 오늘날 우리를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바로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과 유물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2. 가치

문화재는 문화(文化)와 재(財)가 결합된 용어로 문화(文化)는 실체를 부여할 수 없는 가치로 민족 구성원 생활양식의 총체(정신적)라고 할 수 있으며, 재(財)는 문화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물질적)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인류 문화 활동

의 소산으로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총칭한다.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1970년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으로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대상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에 속할 수 있는 여러 범주를 마련하였다. 유네스코가 정한 것에 의하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문화와 자연유산까지 범주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이룩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 소산을 포괄한다. 그래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칭한다. 또한 문화재는 한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꼭 보호 관리해야 하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희귀성,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등이다. 희귀성은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고 있다. 역사성은 문화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 문화재가 과거의 변천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당대의 문화를 담고 있을 경우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된다. 학술성은 문화재의 학술적인 가치 측면, 과거 문화를

이해하고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 예술성은 문화재의 예술적인 가치 측면, 얼마만큼 장인의 심미안을 이입시켰으며, 예술적으로 뛰어난가 하는 측면, 정교하고 균형 잡힌 문화재일수록 예술성을 높게 인정받는다.

전통문화는 문화유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만큼 문화유산이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은 문화유산을 통하여 얻어진 전통문화의 가치는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가교 역할을 한다. 전통문화는 시대적 배경과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오늘에 이어주고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는 특정 지역이나 한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특정 소유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고 후손에게 계승해야 할 공영의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지도사의 역할과 지도

1. 역할과 자세

최근 들어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사람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설사가 등장하여 전국 각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각 나라는 이미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와 육성에 심혈을 기

울이고 있다. 전통문화를 통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창조되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통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는 다른 문화와는 달리 이미 형성되어 있고,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전통문화는 선조들의 얼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유산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성질은 아니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민적인 관심과 의지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역사의 현장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교육장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지도사는 전통문화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참가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 자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게 해야 한다. 적어도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의의에 대하여 한 번 정도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지도사의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들로부터 당시의 문화, 생활상, 이념, 조직, 행동 양식, 슬기, 혼 등을 미루어 짐작케 하고 복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지도사는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유효적절한 지도 방법을 생각하고, 계발하고, 실행하면서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참여자나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

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지도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의 문화적 욕구의 충족 차원에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2. 지도와 지침

전통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화유산은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의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역량을 알리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전통문화지도사는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및 지도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올바른 시대상·역사상·지역상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에는 지금의 관점이 아닌, 그 시대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정치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전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불교미술품이 예술품인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한 상징물인가 하는 단조로운 구분보다는 미술품을 만든 장인은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불교를 상징하고 신앙의 대상물을 만들기 위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불교미술이 불교의 사상과 감정을 造形化라는 방식을 통하여 가시

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감상과 예술의 대상인 순수미술이기 보다는 종교미술로서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조형화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미술품은 일반 감상용의 미술과는 달리 불교라는 종교미술의 소산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은 기록보다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유형의 문화유산이 전통문화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통상 전통문화하면 과거에 만들어져 전하고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비가시적인 무형의 것보다 유형의 문화유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철학, 정신과 혼, 심미안 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무형의 대상이다. 그래서 유형의 문화유산을 조형언어라고도 한다. 이 용어의 의미는 유형의 문화유산이 무언가를 기록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역사적인 기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접근과 관점을 배양해야 올바른 이해와 설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歷史性, 社會性, 藝術性, 宗教性 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歷史性은 시대성을 말하는 것으로 당대의 시대정신과 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社會性은 역사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토착된 사회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측면이다. 藝術

性은 상기의 특성들을 제외하고 단지 감상의 대상으로서 장인의 심미안과 예술적인 기교가 습합되어 있는 즉, 미술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宗教性은 신앙적인 측면으로 어느 종교나 특정 종교로부터 나온 조형물이나 문화유산은 종교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이다. 종교성은 종교마다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경험적인 지각과 전달의 수단을 초월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문화유산은 이러한 측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표현된 소재와 의미를 직선적으로 대입하여 단순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해석의 단조로움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떤 문화유산이든 연구하고 분석할 때 역사성, 사회성, 예술성, 종교성 등 다양한 특성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총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해야만 종합적인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정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성과 다른 전통문화와의 상대적인 특성을 아울러 볼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식견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자연환경에 대응하면서 성장하여 왔고, 북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기질과 풍토가 습합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에는 고유의 민족성과 외래적인 이질성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절충과 조절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성과 조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에는 토속적인 요소도 있고, 외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양상을 띠

고 있어 양자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설명에 임해야 한다.

넷째, 전통문화가 오늘날 어떤 문화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수많은 전통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무참히 파괴되었다. 일제에 의하여 문화혼란의 상황이 초래되었고, 식민지문화의 유입으로 전통문화가 서서히 붕괴되어 갔다. 유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사상이 담겨 연면히 계승되던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졌다.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도 복원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상당히 담겨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떡거리, 행동 양식 등이 조상들로부터 연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시대적인 환경이나 새로운 문화 창조에 따라 전통문화와는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 문화와의 교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의 동양은 중국이 선진문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일본은 우리나라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성장 발전한 나라였다. 그리고 꼭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선진문화의 전파뿐만 아니라 일본→한국, 한국→중국으로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나 전통문화는 고유문화와 외래문화가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고유문화 속에는 민족의 전통과 혼이 깊게 배

어 있으며, 외래문화 속에는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고유문화는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외래문화는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통문화는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외래문화 중에서 취사선택하면서 계발되고 새롭게 창출된 문화이다.

여섯째, 전통문화에 대한 지나치고 과도한 신뢰나 찬양은 지양되어야 한다. 분명 전통문화 속에는 민족적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체성이 담보되어 있는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직시하여 전통문화가 올바르게 후손들에게 계승될 때 민족의 동질성이나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전통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의 이상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 基底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새로운 인식과 높은 이해 등 저변을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단언하는 설명은 지양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과거라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러한 것 중에서 연면히 계승된 것이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유형의 문화유산들은 조형물로 남아있다. 현재 확실하게 단언하여 설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들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단언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현재와 격리시킨 감을 줄 수도 있다. 비록 문화유산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과의 사이에 친밀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히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 것이다. 특히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관점이 아닌 當代의 시간으로 나를 옮겨 강한 상상력으로 접근해야 진정한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전통문화지도사의 實際

1997년 문화유산의 해가 지정된 이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활동들을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단계별로 크게 ① 준비 단계 → ② 실행 단계 → ③ 정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준비

준비 단계는 전통문화의 현장이 있는 지역을 가기에 앞서 계획에 의하여 준비를 하는 작업이다. 준비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참가 인원들의 성향, 연령, 학력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인의 경우와는 달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한 것과 체험 위주로 준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는 수준을 점점 높여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스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 계절별, 날짜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짜야 한다. 또한 시대별, 테마별 등에 따른 답사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지역별 답사 시에도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답사지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별로 답사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역사를 시간적인 순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대별로 답사지를 선정할 때에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테마별로 할 경우에는 주제가 무엇이고 참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답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테마별 답사 시에는 전문적인 설명을 준비하여 참가자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 외에도 특정 지역으로의 답사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답사 지역에 어울리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예약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장 출발 전 자료집이 준비되고 배포되어야만 답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출발 직전에 자료집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책자 형태로 간단하게 작성된 자료집을 읽거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자료집에는 일정, 참가인원, 준비물, 답사지역 개관과 선정 이유, 답사지역의 역사지리, 교통편, 위치도, 답사 대상 지역의 자세한 설명, 답사 인근 지역

의 간단한 설명 자료 등 작지만 유용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답사 시 필수적인 준비물로는 신호기, 메가폰, 명렬표, 필기도구, 비상연락망 등이다. 이외에도 멀미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소독약, 밴드 등 기본적인 약품뿐만 아니라 가위, 칼, 비닐봉지 등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통편, 교통편의 접근성(사전 답사 지형과 접근로 파악), 도보의 양, 연령에 따른 코스 선정, 현지에서의 이동 시간, 인솔 계획, 비상 시 대처 방안, 도착 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2. 실행

실행 단계는 계획에 의하여 현장으로 답사를 직접 가는 것이다.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답사에 참가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원 통솔, 답사지역에서의 설명, 효과적인 이동로, 원만한 식사 제공 등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출발 시 시간대별 하루 일정에 대한 소개와 개인의 행동 범위 등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무질서한 행동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삼가도록 당부해야 한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충족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의 설명과 특색 있는 식사 제공이 핵심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명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6하 원칙에 의하여 중요한 내용들과 참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한다.

한편 재미있는 내용들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마치기도 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여야 한다. 용어는 가능하면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하며, 질문을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질문이 광범위하거나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에서 이동시이나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설명이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3. 정리

정리 단계는 답사에서 본 현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부각시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억이 될 만한 기억을 되새겨보게 하고, 답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답사 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주고, 소감문이나 설문을 받아 다음 답사 시 참고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나 참가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맺는말

전통문화는 우리들의 문화유산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민족의식 함양의 길잡이가 되는 등불이다. 그러므로 온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항상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부터 떠나지를 않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어느 나라든지 전통문화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문화유산(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영구히 간직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일반인들에게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우리 역사와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전통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색다른 지식으로 접근하게 하여 여기활동과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삶과 자신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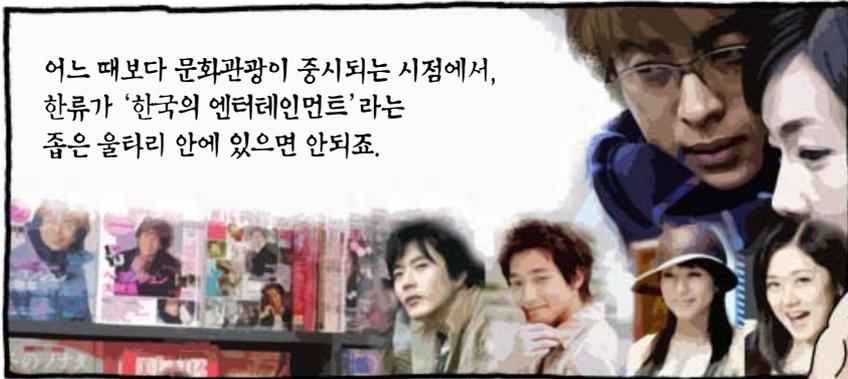
전통문화지도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양과 질,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일반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통문화는 소비와 향락에 젖어있는 저질문화를 청산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창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전통문화를 접하고 이해를 높인 일반인들은 한 차원 높은 고급문화의 향유와 새로운 문화 창조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_ 엄기표 | 단국대학교 교수

한류, 당신은 누구세요?

@ 을지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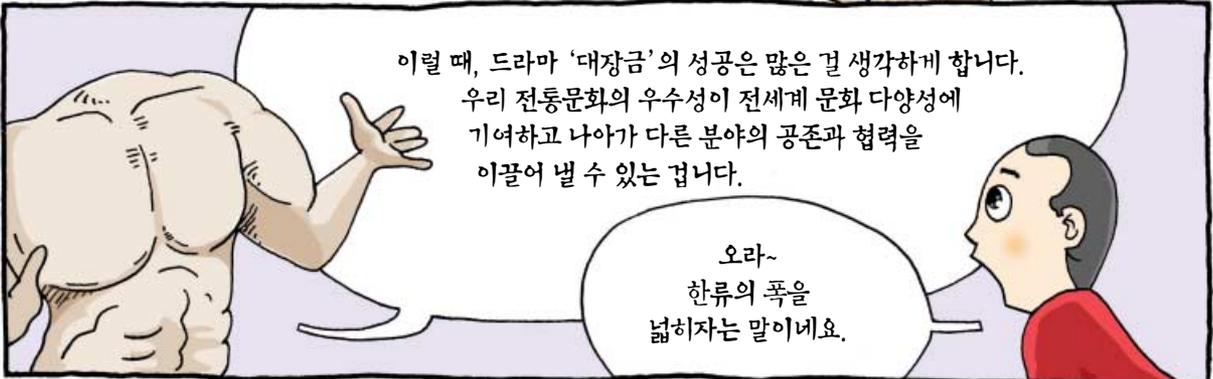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한류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되지요.



게다가 한류를
미국문화의
퓨전이라고 해서
하급문화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럴 때,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이 전세계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다른 분야의 공존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라~
한류의 폭을
넓히자는 말이네요.



한류는 결국
관광산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우리문화 확립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문화의 확립은
지역문화, 향토문화, 생활문화의
고른 발전에 따라



이렇게 되느냐...

한 류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 류

2005 노인참여형 문화예술 시범사업

땡땡땡!



실버문화 학교

신년특집

실버들이여!

전통문화로 인생 2막을 열자

» 실버프로젝트 사업개괄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세대교감’, ‘소득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실버프로젝트 좌담회 | 고령화시대 문턱에서, 지역문화와 문화복지가 만나다

» 실버프로젝트 현장탐방

- “저요! 저요!” 동화·동요 배우기에 열성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
- 예절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불편한 몸 이끌며 절하기·다도 등 전통예절 배워
- 할머니 할아버지 21명 전원 한번도 지각없이 ‘어르신 문화도우미’ 과정 수강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세대교감’, ‘소득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0년부터는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 나라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성 연금의 부족 등 부정적인 면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문화”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이는 듯하다. TV와 인터넷의 소위 문화를 거론하는 자리마다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하나 “노인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일요일 아침에 우스갯거리로 살짝 끼어있거나 흘러간 옛 노래를 향수하는 정도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 찾는 노인 문화는 무엇인가? “노인문화”하면 생각나는게 뭐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만난 대학생은 “파고다공원에 모여 있는 모습이나 경로당에서 한가하게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시는 모습”이 전부라고 한다. 물론 그 청년의 대답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답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노인은 그저 소외되어 생산과 소비의 주체에서 밀려나 힘없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죽어도 좋

야’가 노인의 감춰진 성문화를 드러냈듯이 이제는 노인문화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도 할머니와 함께 유년시절부터 결혼까지 4대가 한집에 살아 노인분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자신했으나 지금에 와서 당시를 회상하면 내 자신이 어르신을 모시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7080’이라는 TV프로그램은 동시대에 공유하던 노래를 놀이문화의 틀로 묶어 문화적 향수에 젖게 한다. 그러나 지금의 70~80년도 대학졸업생들이 노인 기준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불과 10년 후이다. 이들 마저도 경로당 또는 파고다공원에 둘러 앉아 ‘화투, 장기, 바둑’을 즐기는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것은 노인문화를 전수받고 즐길 것인가? 하긴 그때는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 되어 경로당도 부족하고 파고다공원도 공간이 부족할 터이니 대기번호 받고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사회적인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06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8만개를 정부사업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실버취업박람회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등 행사장을 찾는 어르신들의 열기는 참 대단하다. 그러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 찾는 노인문화는 무엇인가?

‘노인문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만난 대학생은 “과고다공원에 모여 있는 모습이나 경로당에서 한가하게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소일하시는 모습”이 전부라고 한다.

나 참가자의 반응은 지난 세월 다져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취업기회는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행사가 너무 전시적이고 일회적이며,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세대의 각각의 문화가 가꾸어지고 키워져야 하듯이 노인문화의 경우도 가꾸고 키워져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연합회가 국무총리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참여 소득창출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이 프로그램들이 한결같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인 참여문화’를 통한 세대간의 교감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참여 소득창출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노인이 더 이상 수혜와 의존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소득창출형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참여하도록 하여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노인문화」를 조성해 간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현재는 2005년도 11월부터 전국의 224개 문화원 중 10개를 선정 지방문화원의 시범사업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해당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내 고장의 문화유적에 대해 이를 찾는 사람들(학생 혹은 여행자 등 타지방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어르신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는 충주문화원의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된다.

문화원에서 매뉴얼화된 지역별 문화유적지 정보를 정리하고 어르신들의 교재로 사용하고 문화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화법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재 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한 문화재당 세분이상 교육시켜 어느 한분이 개인적 어려움으로 해설사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한 지역에 10개의 유물이나 유적지가 있다면 필요한 해설사는 30명이 된다. 전국 220여개 문화원을 대입하면 66,000여명의 지역문화재 해설사가 양성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해문화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화구연단 및 실버하모니카연주단을 준비중이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해당지역의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손자손녀들

지방문화원 중심의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문화계승 및 전달자로서의 생산적인 노인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에게 또는 지역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통영문화원은 전통연 이수자인 어르신이 나서서 가르치고 만들어 판매까지 하는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사천문화원에서는 전통연 및 민속연 만들기 교실 의령문화원의 경우는 농한기에 벗짚을 이용한 짚풀공예를 배우고 만들어 실버예술벼룩시장을 통해 바자형태로 판매하겠다는 프로그램에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태백문화원의 경우는 칠보공예를 통해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문화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도우미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산청문화원에서는 시조창과 서예를 배운 어르신들이 해당 지역내 초·중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세대간의 전통문화전달 및 소통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문화원에서는 다도에서 수제차 생산까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대전동구문화원에서는 잊혀져가는 전통예절을 초·중등학

교에 제대로 가르치는 예절교육단 어르신들이 양성되고 있는 등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프로그램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전국 10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총 600여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 중심의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문화계승 및 전달자로서의 생산적인 노인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지갑이 두둑한 해박한 지식의 문화예술사업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젊은 세대의 생활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교감은 국가를 지탱해가고 세대간 교감을 강화시키는 건강한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엔 추진되고 있는 이 10개 시범사업이 훌륭한 모델로 제시되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지방문화원 중심 노인 문화사업으로 발전되어가기를 희망한다.

장상호 | 전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실버프로젝트 좌담회

고령화시대 문턱에서, 지역문화와 노인복지가 만나다

진행 _ 최화성 | 전국문화원연합회 실버프로젝트 담당

좌담 _ 안이영노 | 문화기획자 · 기본좋은 트렌드하우스 QX 대표, 유 경 | 사회복지사 · 어르신사랑연구모임

최화성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시행되는 가운데 문화와 복지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문화기획자 안이영노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유경 선생님께서 자리해주셨다. 유경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유경 : 오래 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노인복지에 뜻을 두고 현장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1996년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개관 멤버로 참여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로 노인대학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 학습 모임인 ‘어르신사랑연구모임 (<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며 여러 매체에 노년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최화성 : 안이영노 선생님께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총괄기획하셨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으며,

본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이영노 : 나 자신이 허리세대가 되면서 60세가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문화인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쳤다. 문화에 대한 소외자인 노인세대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게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고령화 사회, 인구의 문화정책은 소외계층 다수의 복리(복지)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노인세대를 위한 문화사업을 집중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여가 문화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문화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문화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정착하게 유도하고, 노인들이 자기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원봉사에서 일자리 및 소득창출까지 연계 가능한 중장기적 프로젝트다.

최화성 : 유경 선생님께서 지난해 12월 실무자 워크숍 때 이번 시범사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인복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노인참여형 문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문화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문화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정착하게 유도하고, 노인들이 자기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내 자원봉사에서 일자리 및 소득창출까지 연계 가능한 중장기적 프로젝트다.



화예술 시범사업을 어떻게 보았는가?

유경 : 우선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라는 이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노인 참여형’ 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 흔적을 발견했고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 것이 반가웠다. 또, ‘문화예술 시범사업’ 이라는 점에서 이제 드디어 문화예술 분야가 노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구나, 느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문화예술의 장(場)을 펼쳐놓아도 향유하거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유의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 이름도 땡땡땡! 실버문화 ‘학교’ 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절부터 시작해서 전통의 계승, 문화유산 해설, 문화 도우미, 하모니카 연주, 세대 간 소통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짐작하지만 그래도 잘 키워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한 계승과 해설, 시연을 넘어 세대간 소통으로 나가는 데서

노인은 연애나 성(性)·사랑·결혼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사랑과 성(性)이 젊음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오만이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것도 가장 큰 편견과 오해 중 하나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화성 : 지난번 워크숍 때 유경 선생님의 특강은 실무자들과 컨설턴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때 언급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유경 : 하나, 나이 들을 남의 일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오해와 편견이다. 노인도 같은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로 생각해야 한다. 둘, 노인 모두가 다 허약한 사람은 아니다. 충분히 건강하며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셋, 노인이 비생산적이라 생각한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었을 때는 달라진다. 또, '생산 = 돈'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문화의 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 노인이 교육을 통해 바뀌지 않으리라는 편견을 버려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충분히 배우고 소화해 낼 수 있는 분들도 많다. 다섯, 노인은 연애나 성(性)·사랑·결혼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사랑과 성(性)이 젊음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오만이다. 여섯,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것도 가장 큰 편견과 오해 중 하나다. 노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다르다!

최화성 : 노인관련 사업은 복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노인복지와 이번 문화예술 시범사업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안이영노 : 문화예술계는 90년대 이전 예술가와 같은 문화생산자의 지원에 힘을 기울였고, 90년대 들어 문화수용자들의 향수권에 관심을 가졌다. 시민문화 발전, 문화환경 조성, 문화향유자들의 직접지원 등이 일어났다.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문화향유자들의 문화참여 방안, 즉 아마추어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문화수용자들의 심도있는 자기발전기회에 더 집중하는데, 이는 선진국화 하는 경향이다. 이때 소외자의 문화향유권 문제와 한 개인의 문화적 복지환경에 좀더 집중하게 된다. 노인세대가 비교적 소외된 지방문화 속에서 충분히 문화를 즐기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실버문화사업은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던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 양쪽의 접근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만나서 작업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업에 문화예술계 전문가보다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기용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다.

최화성 : 복지전문가 입장에서 노인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상으로서의 노인을 넘어 내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넓혀 나가야 한다. 노인은 이제 ‘객체’가 되어선 안된다.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자립성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유경 : 노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대상으로서의 노인을 넘어 내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넓혀 나가야 한다. 노인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다.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자립성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안으로 모아 바깥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이 노인을 가르치는 老-老 프로그램과 세대간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이다.

최화성 : 그렇다면 관점을 달리하여 문화기획이 입장에서 노인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안이영노 : 복지분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기획 분야도 적용되는 얘기이다. 노인세대에 대한 좋은 이해는 예술, 교육 등 타 분야의 단체,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고 이들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좋은 문화기획은 두 가지 접근에 근거한다. 하나는 소비자 혹은 수용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진짜 이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마케팅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작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조사연구, 혹은 연구개발하는 태도가 오늘날 기획자에게 부

족하다. R&D는 공학분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계나 사회복지 분야에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문화기획자나 노인복지 활동가나 모두 다양한 공부를 통해 창의성 넘치는 기획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최화성 : ‘복지’와 ‘문화’가 서로의 영역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복지단체, 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문화와 복지가 서로 가까워지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유경 :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교류가 필요하다. 일단 만나야 한다! 만나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단체와 복지관이 연계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노시는지 복지관이나 양로원을 방문해보고, 고령체험 등 해 볼 수도 있다. 함께 하는 세미나, 학습모임, 혹은 위탁교육 등도 한 방법이다.

안이영노 : 위에서 이야기했듯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등이 만나 공동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서로 배운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다른 방법론을 습득하는 실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사회복지나 하는 영역구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50대 후반 세대들이 어떠한 문화

실버문화학교가 지역의 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해 자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와 복지의 만남에서 ‘공유와 교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공유와 교류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환경과 복지환경에 놓여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춤형의 문화복지 지원을 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즉, 수혜자, 향유자 관점에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예술이든 복지든 교육이든 무엇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좋은 기획이라고 본다.

최화성 : 유경 선생님께서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노인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유경 : 가장 많이 논의하고 고민했던 것이 노인복지관, 문화원, 문화의 집, 대학 평생교육원, 주민복지문화센터 등 ‘거점의 문제’였다.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거점들이므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계 없이는 중복되거나 사업 중심, 성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최화성 : 시범사업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2006년 사업이 더 확장되어 전개될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달라.

안이영노 : 사업성과는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기능으로, 노인의 문화향수기회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 활동하도록 돕는 공간으로 보았다는

데 있고, 또 이를 위해 지역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획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땡땡! 실버문화학교>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브랜드)을 만들어 낸 데 있다. 사업한계는 노인들의 문화교육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노인세대가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과 취미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였으나, 한편으로 직접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 후 문화활동을 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2006년은 문화교육보다 지역연계 등 문화사업의 사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향후 계획은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인 복지환경을 만들자는 계획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지속되지만, ‘여가에서 사회참여로’라는 모토에 맞게 직접 지역사회참여, 사회봉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일거리 창출 등 좋은 모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마다 개별화, 특성화된 지원을 할 것이다.

최화성 : <땡땡! 실버문화학교>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가길 기대하고 있는지?

유경 : 지역의 복지 단체나 기관과 연계해 자원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실버문화학교가 지역의 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해 자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와 복지의 만남에서 ‘공유와 교류’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공유와 교류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해 볼 사람?” “저요! 저요!”

동화 · 동요 배우기에 열성적인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

“누가 한번 앞에 나와서 해 볼 사람!”

“저요! 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유치원 교실처럼 수줍은 듯 붉히면서도 저요! 를 외치는 실버학생들입니다. 땡땡! 실버문화학교의 수업 종이 울리기도 전에 미리미리 모여 어제 배운 노래랑 동화를 연습하는 귀여운(?) 학생들! 처음 동화구연이랑 하모니카반을 개설했을 때 과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잘 따라하며 숙제도 잘 해오는 활기찬 모습, 서로 경쟁이 되어 선생님께 잘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천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KBS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날, 카메라에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미장원을 다녀오시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오시는 모습도 너무 정겹습니다. 유치원 실습을 가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하는데 세대를 훌쩍 뛰어 넘어 그대로 친구가 됩니다.

“아! 이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 마음에 젊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는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베풀기만 하고 자신의 끼를 찾을 기회가 없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년소녀가 되어 몸속에 간직한 끼들을 발산해 내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동요 부르는 어른들의 모임 <철부지>와 함께 하모니카 수업을 할 때, 하모니카 연주자를 찾는다는 강사선생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당당히 “저요!”를 외치며 손들고 나서는 예쁜 할머니 학생. 모두들 하하호호 즐겁게 웃으며 하모니카와 기타의 합주 속으로 빠져듭니다. 힘들지만 호흡법부터

시작하여 음의 고저장단까지 배워가는 모습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 실버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의 마음이 뿌듯해지며 수업을 지켜보는 내내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우리 실버문화학교 학생들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비록 이번의 배움으로 당장 프로 구연가, 연주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함께 배워가는 과정 속에 숨어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끼를 찾고, 어린 손자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능을 맘껏 뽐내며 가족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TV에만 의존하여 보내던 시간을 새로운 문화 속에 빠져 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줘 더욱 이 사업의 의의를 느낍니다. 지역활동가가 있어 문화원의 바쁜 업무로 소홀해 지기 쉬운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 책상정리며 난방까지 일일이 신경 써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숙하게 지내는 지역활동가의 모습이 더욱 보기 좋았습니다. 땡땡! 실버문화학교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웅기종기 모여 방금 배운 내용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묻고 답소도 나누며 즐겁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연중 계속되어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끼를 찾아 실버문화예술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땡땡! 실버문화학교 화이팅!

대전

예절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불편한 몸 이끌며 茶道 등 전통예절 배워

2005년 11월 23일 대전동구문화원 예절관이 시끌시끌하다. 30여명의 어르신들이 2005년 노인참여형 문화예술 시범사업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대전동구 예절교육단 강사양성 워크숍」의 개강식이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웃음이 가시지를 않는다. 하지만 강사분들이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뭇 진지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점차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에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봉사하며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우리 문화원의 프로그램 「대전동구 예절교육단 강사양성 워크숍」에 호응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 듯하다.

인사법을 배우실 때에는 어르신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시연하는 강사들의 절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피고 직접 따라해 보신다. 처음엔 잘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절하는 모습에서 그럴듯한 태가 나타난다.

다도 수업 시간에는 강사들의 시연을 꼼꼼히 보신 후 실습을 해보신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차를 타 마시면서

서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 하지만 다도의 모습을 지켜보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 되었는지에 대해선 엄격하게 이야기 하신다.

어르신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30분전에 미리 예절관에 나오셔서 수업준비를 하신다. 강사분들이 직접 만드신 '전통생활 예절' 교재를 보면서 예습을 하시고, 모르는 것이나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의견교환을 하시기도 한다.

이제 3주정도가 지나면 교육이 수료된다. 18주라는 기간이 예절교육을 심도 있게 배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수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 예절교육을 통해 봉사할 기반을 마련하셨을 것이다.

수업시간을 기다리며 이 글을 쓰는 동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재와 손수 준비하신 한복을 꼭 안고 삼삼오오 들어오신다.

그 분들의 밝은 아침인사에 나도 따라 마음이 환해진다. 부라보, 브라비, 브라바

김경순 _ 대전동구문화원 지역활동가

할머니 할아버지 21명 전원 한번도 지각없이 '어르신 문화도우미' 과정 수강

50대에 이력서 들고 취직하러 다니는 것과 60대가 노인행세 하는 것이 현대판 꼴불견 중의 하나란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 평균 수명이 일흔 다섯을 웃도는 때에 이불 덮고 방 안에 누워 있을 수도 없다. 선불리 남에게 의지하다가는 자신도 이웃도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는 생리적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행인 것은 노년층이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한결같은 사고를 버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를 향한 베품의 시야를 넓히고 싶은 욕망에 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제도나 여건이 갖추어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차에 광명 문화원에서 개설한 '어르신문화도우미' 강좌 프로그램이야말로 개인으로나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남여 21명 수강생의 눈빛은 진지함을 넘어 숙연할 정도였다. 12회 44시간의 다양한 강좌가 강의실과 현장으로 오가며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동안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음을 물론 결석은 고사하고 지각생도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내가 아직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도 고마운데 이것을 이웃을 위하여 되돌려 베풀며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우리는 나이를 잊었다.

우리 수강생들은 클래식 음악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

음률에 젖어 보기도 하고 피교육자, 도우미의 입장에서 연극도 관람(늙은 부부 이야기)했다.

광명오페라단의 송년 음악회를 보면서 배운 대로 지식을 활용할 때는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한국 전통 음악의 모미는 알수록 심취의 도가니로 이끌더니 2005 우리시대의 명인전(한국문화의 집) 중 '산조(散調) 열전'은 이번 강좌의 백미였다. 마당극 '마포 황부자'는 창작자 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한바탕 흥이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손바닥으로 치는 무릎장단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고 혹독한 추위도 흥이 녹였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은 현장에서 선생님이 직접 그림 보는 법, 그림 성격, 미술관 예절 등을 설명해 주니 이제 미술관에 가도 주눅이 들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무용 강좌와 사례발표도 빼 놓을 수 없는 알찬 시간이었다.

이런 강좌에 참가하게 된 것은 기쁨이 아니고 영광이며 좋은 프로그램을 주신한 광명 문화원과 특히 실무를 담당하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게 알뜰살뜰 보살피며 봉사한 실무자 박혜옥님께 머리 숙여 감사한다. 이제 수강생 21명은 스스로 누리며 베풀고 값을 일만 남았다. 어르신문화 도우미 교육 수강생은 남여 혼성이니 '부라보'도 '부라비'도 아닌 '부라비'다. 광명어르신문화도우미 교육 수강생 브라바!

손장석 _ 광명문화원 수강생

영양실조로 숨진 4살 짜리 수라 애도 ...

미아리 눈물고개 이별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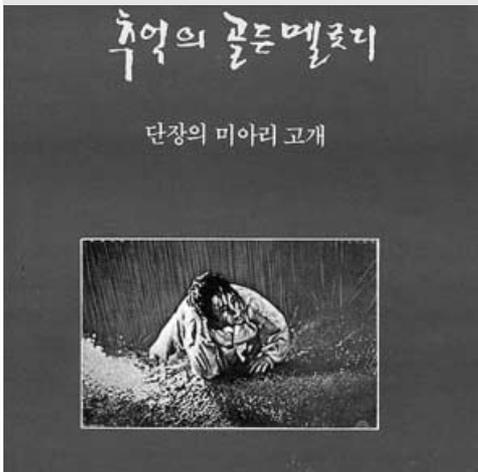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악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 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2절)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것은 잠이 들고
동지선달 지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십 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울고 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고개
한사코 우는 구나 박달재에 금봉이야

서울엔 많은 지역들이 있다. 크게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지만 26개 구청과 수백 개 동이 있어 그야말로 국제규모의 수도답다. 동엔 나름대로 지역유래가 있고 사연들도 적잖다.

소금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돌의 빛깔이 검어서 ‘흑석동’, 지형이 학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학동’, 옛날 큰 사당이 있었다고 해서 ‘사당동’ 등 유래를 더듬어보면 참 재미있다.



뽕밭이 있고 누에를 키웠다고 해서 ‘잠실’, 한강변의 양화교인 공 폭포 서쪽의 ‘염창동’은 조선시대 뱃길이 닿는

대중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에 나오는 서울 미아동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붙여졌을까? 강북구에 속해 있는 이 곳은 불교에서 나오는 아미타불의 ‘아미’ 글자를 뒤집어놓은 것이란 설이 유력하다. 더욱이 미아7동의 불당곡에 미아사란 절이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미아동은 불교적 표기에서 이름지어졌다는 견해가 대세인 것 같다. 미아동은 이 같은 지역유래 못잖게 대중가요 <단장의 미아리고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곳에 가면 노래비가 우뚝 서 있어 눈길을 끈다.



• 미아리고개의 어제와 오늘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 반야월 선생

역이라 보면 된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 1.4후퇴 등 치열했던

노랫말처럼 서울시 미아동은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 때 서울의 북쪽 관문격으로 이곳을 지나치지 않고선 피난이나 전투를 할 수 없었을 만큼 유명했던 지역이다. 남쪽의 사당동이나 과천쯤 해당되는 지

전쟁의 고비 고비마다 미아리는 역사와 우리들 삶의 중심현장에 서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강북지역 중심가로 자리 매김, 그 옛날 미아리가 아닌 듯 싶다. 넓은 면적과 변화한 모습, 주민들의 활기찬 분위기는 노래 속의 과거 미아리와는 영 딴 판이다.

미아동을 전국에 알린 <단장의 미아리고개> 가사엔 눈물과 화약연기, 북풍한설, 감옥살이 등 비극적이고 비참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전쟁 흔적들이요 통한의 발자취다.

6.25 당시 죽은 딸 기리기 위해 작사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이해연 노래의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대중가요다. 노래 주인공은 경남 마산출신의 음악인 반야월(본

명 박창오 / 1917년 8월 1일 출생)선생의 둘째딸 박수라. 반 선생은 전쟁이 터지자 음악을 하는 연예인으로 사정이 있어 가족은 두고 먼저 피난길에 올랐다. 그의 부인은 남편을 뒤따라 곧바로 피난길에 합류키로 했으나 어찌다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각자 따로 몸을 피하게 됐다. 부인과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반 선생은 답답했으나 전쟁중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애간장이 탄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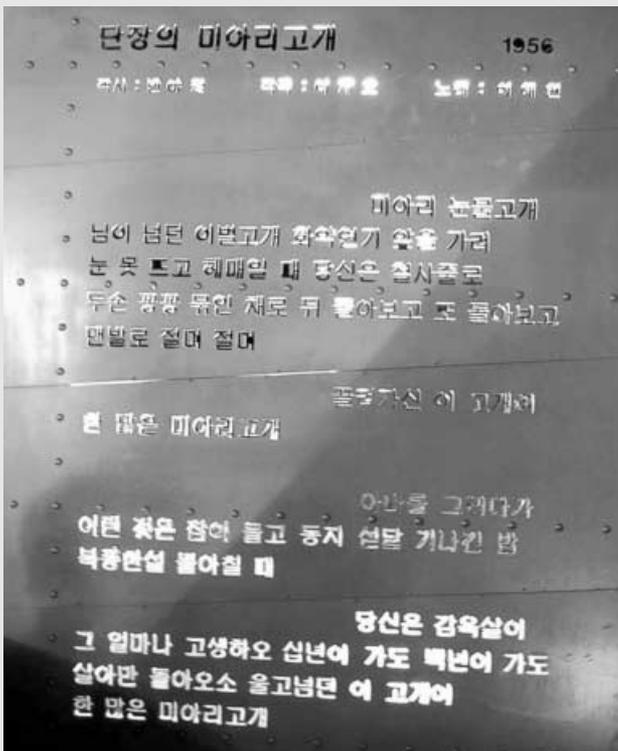
9.28수복 때 서울에서 아내를 극적으로 만났다. 재회를 한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 잃어버린 둘째딸 때문에 일순간 눈물바다를 이뤘다. 아내의 기막힌 얘기를 들은 반 선생은 자신이 어머니를 그리며 취입했던 <불효자는 읍니다>가사처럼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아내 설명은 이리했다.

“우리 둘째딸 수라가 죽었어요. 전쟁의 북새통에 죽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던 수라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다 자욱한 화약연기 속에 숨을 헐떡이며 애처롭게 죽어갔어요. 뼈만 남은 저의 손으로 어린 4살 짜리 내 딸 수라를 입은 옷 그대로 싸서 호미로 땅을 파고 언덕에 묻고 넘어왔어요.”

딸의 죽음을 들려준 그의 아내는 남편 앞에 쓰러지며 목에 메었다. 그로부터 부부는 애처롭게 저 세상으로 간 딸을 생각하며 눈물짓기 일쑤였고 전쟁을 원망하길 수십 번.

반 선생은 딸의 명복을 빌고 원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전공인 음악으로 슬픔을 승화시켜 보자고 마음 먹었다. 인간의 죄악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숨 한번 크게 쉬어보지 못하고 비명에 간 딸의 마지막 모습을 애써 그려보면서 노랫말을 만들어 여자가수 이해연에게 취입토록 한 것이다.

노래흐름은 남편과 아내의 생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



“우리 둘째딸 수라가 죽었어요. 전쟁의 북새통에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있던 수라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다 자욱한 화약연기 속에 숨을 헐떡이며 애처롭게 죽어갔어요. 뼈만 남은 저의 손으로 어린 4살 짜리 내 딸 수라를 입은 옷 그대로 싸서 호미로 땅을 파고 언덕에 묻고 넘어왔어요.”

지만 사실 그 밑바닥엔 딸 수라의 숨결이 고스란하게 깃들여 있다. 숨진 딸이 지금 살아있다면 57세쯤 됐을 것이다.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인 반 선생은 자신이 만든 5천여 곡의 대중가요 중 지금도 이 노래를 가끔씩 듣는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보람도 컸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3가지 한(三恨)이 가슴을 저미고 있는 까닭이다.

반 선생은 자신의 저서(나의 삶, 나의 노래)에서 세 가지 한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

“22세 때 태평레코드사 전속가수가 돼 일본 오사카로 레코드취입 차 출국, 녹음실에 닿자 ‘모친별세’란 전보를 받고 눈물범벅 속에 <불효자는 읍니다>를 불었던 게 첫 번째 한입니다. 두 번째는 6.25전쟁 때 남북 이산가족으로 운명 지워진 큰누이, 작은 누이와의 생이별이고 세 번째 한은 바로 저 세상으로 간 딸 수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러온 슬픈 노래가 백이요, 천이요,

만이지오만, 또 흘러간 그 노래의 사연과 추억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노래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다”고 털어놨다.

반 선생은 고령인데도 사단법인 한국가요작사작곡가협회 원로원 의장으로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고향 마산에선 매년 ‘반야월 가요제’를 열어 향토출신음악인으로 크게 받들고 있다. 가수, 작사가, 작곡가로서 마산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노작사가 가슴 곳 깊이 응어리져 있는 사연의 노래 <단장의 미아리고개>. 6자 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방문 등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익어 가는 요즘 전쟁을 모르는 신세대엔 이 노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싶다. 노랫말 속의 상황을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그저 한 때 그 옛날 전설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글 _ 왕성상 | 뉴시스 부국장

필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고 기자가수 1호로 sbs 등 방송출연과 글을 쓰고 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등록번호 865호) 소속. wss4044@hanmail.net

새해 생년 생월 생시를 놓고 보는 토정비결은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다. 한해의 운수를 점쳐볼 수 있다는 토정비결은 매 월당 김시습, 북창 정려과 함께 조선의 3대 기인으로 손꼽힌 토정이란 자에 의해 쓰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토정의 풍모를 전해주는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지함을 토정이라 불렀다. 이지함이 거쳐하던 곳이 토정(土亭)이었기 때문인데 토정은 일찍이 한양의 마포 향구에 흙을 쌓아 언덕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는

호는 토정(土亭)·수산(水山). 아버지는 현령 차(禰)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 지번(之蕃)에게 배우다가 서경덕(徐敬德) 아래에서 수학했고, 이이(李珣)·조헌(趙憲) 등과 교유했다. 1573년 탁행(卓行)으로 천거되어 포천현감을 지내다가 이듬해 사직하고 1578년 아산현감으로 부임해서는 걸인청(乞人廳)을 세워 걸인·노약자·기민(飢民)을 구제했다.

그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주경궁리(主敬窮理)와 실천이행(實踐履行)을 독실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토정비결의 저자 토정은 조선시대 ‘빈민운동가’

굴을 위에는 정자를 지었다. 그런데 큰물이 젖을 때도 토정이 만든 흙 언덕은 언제나 그대로였다고 한다.

얼굴은 둥글고 검은 편이고 눈빛이 강렬했다. 특히 여느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 보이는 큰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발이 무척 컸다고 한다. 토정은 앞일을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특출나 젊은 시절 장인에게 화가 닥칠 것을 미리 알았다 한다. 하루는 토정이 그 부친에게, “아내의 가문에 불길한 기운이 있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장차 화가 미칠 것입니다.”라고 아뢴 뒤 식구들을 이끌고 서둘러 한양을 떠났다. 바로 그 다음 날, 토정의 장인은 사회에 연루돼 목숨을 잃었다. ‘실록’에서는 토정의 예언 능력을 매우 칭찬하는데 토정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사태를 예언했다는 구비설화 또한 유명하다.

토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자본주의 경제를 주창한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였으며 지리와 천문에 밝은 과학자 그리고 빈민 운동가로도 알려져있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형백(馨伯)·형중(馨仲),

의학·복서(卜筮)·천문·지리·음악·술서 등에 능통했으며, 괴상한 행동, 기지(奇智), 예언, 술수에 대한 많은 일화가 전해온다. 복서에 뛰어나다 하여 1년의 신수를 보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토정비결>을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단지 그의 호인 토정의 이름을 차등했을 뿐 토정비결의 저자가 이지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이지함이 비록 술서(術書)에 능통하고 복서(卜筮)를 잘하여 앞일을 내다보는 데 유별난 재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학문적 바탕이나 경향으로 보아 이러한 점복서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 비결이 널리 세시풍속으로 정착된 것이 19세기 순조 이후라는 점을 들어 이지함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뒤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한 해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토정비결은 모자람과 지나침을 스스로 반추케 하는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글 _ 김보라 기자
참고 _ empas 백과사전

봄을 기다리며

우수(雨水)를 지난
한낮의 햇살은
가득 가득 모여드는 층만으로
유난히 눈이 부시다.

참으로 신기허구나.
새 하늘의 지평이 열리고
바람도, 나무도, 구름마저도
새 외출복으로 갈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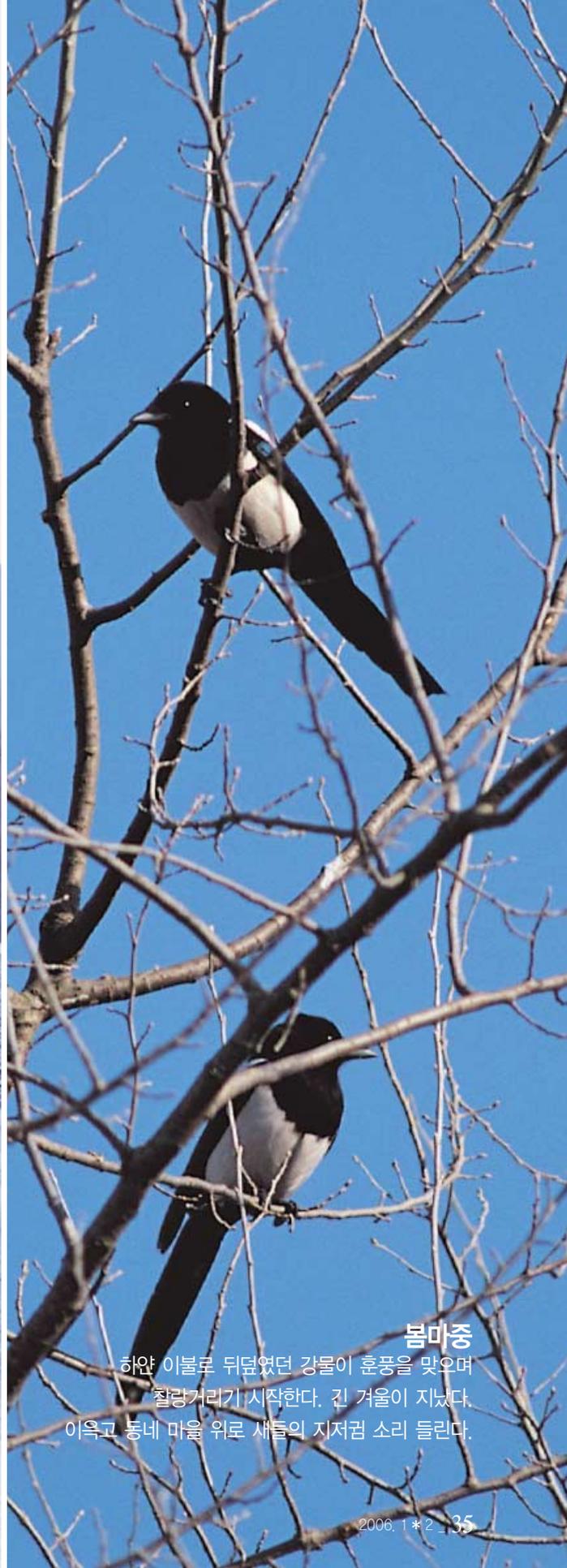
작은 잎새들이
누가 부르지 않아도
겨울바람을 헤집고
일어서는 몸짓,
줄기차게 뛰는 맥박을 보겠구나.

봄이 오는 길목,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운 아침상을 대하듯
가슴시린 겨울바람 속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그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며 살까.

권용태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 시인







봄마중

하얀 이불로 뒤덮였던 강물이 훈풍을 맞으며
찰랑거리기 시작한다. 긴 겨울이 지났다.
이윽고 동네 마을 위로 새들의 지저귐 소리 들린다.

서원 한 바퀴 도니 선비정신 ‘저절로’ 시골서 난생 처음 콩타작 하며 ‘까르르’ 오전엔 선비 · 오후엔 농부

2박 3일 동안 안동서 청소년대상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2단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채택되었을 때 이번에는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별된 기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 학생 선발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먼저 안동교육청에 의뢰를 하니 프로그램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이었으나 학생선발이 너무 산발적이다 해서 한 학교를 지정해 주었다. 학교측에서는 요즘은 기초생활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기초생활대상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선발을 하면 오히려 주눅(?)이 더 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첫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민속놀이 · 문화재 가꾸기 · 음식체험 · 하회마을 관람 및 하회별신굿 탈놀이 관람 및 따

• 콩타작





• 왼쪽부터 _ 경운기 타기, 굴렁쇠 굴리기, 음식체험

라 배우기 · 전통혼례 · 병산서원 관람 · 고택체험을 하고 둘째 날은 고택 청소 · 금줄걸기 · 짚풀공예 체험 · 전통예절체험 · 농촌길 체험(경운기 타기) · 고구마, 감자 굽기 · 콩타작 · 마캐기 · 저전농요 따라 배우기 · 제사체험 · 월영교 관람. 그리고 문화재 가꾸기와 체험 나눔의 시간으로 이번 체험은 마무리가 됐다.

체험의 주 장소는 오천군자마을이다. 오천군자마을은 조선 초기에 광산김씨 예안파의 시조 농수 김효로 공이 입향한 이래 그 후손들이 600여 년간 세거해 온 마을이며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있던 정자, 종택, 사당 등 다수의 건물들을 옮겨왔고, 일부 주민이 이주해 사는 곳이다.

이곳에 온 학생들의 첫마디는 “와!!”라는 짧은 탄성이었다. 진행하는 본인도 이곳에서 진정한 선비의 정신을 배워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의 초점은 첫째 안동의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고택이 많은 안동은 전통체험을 하기에 참 용이한 곳이다.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나 이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활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준다. 또다른 하나는 군자리라는 장소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보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강사를 도입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곳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니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이가 자연스러웠다.

첫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학생의 수가 많은 관계로 조편성을 하여 한 팀은 문화재 체험, 음식체험을 했다. 음식체험은 이 지역에 생산되는 단호박을 재료로 하는 것으로 호박죽과 호박송편을 만들었다. 열심히 하고 제일 잘 만드는 학생들에게는 문화원에서 준비한 상품을 주니 너무나 적극적이었다. 민속놀이 체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굴렁쇠 굴리기와 단체 줄넘기를 편을 나누어 진행했다. 체험 두 가지를 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전통혼례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기 위해 하회마을로 이동했다. 하회마을은 결코 1~2시간에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회마을은 전통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마을로 마을전체가 중요 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된 마을로서,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된 여러 유형·무형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징비록은 임란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하회탈과 고택 등은 민속문화의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연구·보존 가치가 높다.

짧은 시간에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고 따라 배우고, 연이어 양진당으로 들어가 전통혼례를 체험했다. 신랑, 신부, 집사, 홀기자, 기력아범, 신부아버지 등의 역할을 맡아 직접 한복을 입고 체험토록 했다.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하회마을에서 나와 병산서원으로 이동하였다. 병풍 병

(屏)자에 피산(山), 병풍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산이라 해서 병산, 만대루에서 바라본 병산은 너무 아름다워 눈이 시렸다. 병산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서, 서애 류성룡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이다. 서애 류성룡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류성룡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헌 1000여종 3000여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 서애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선생의 제자들과 유림이 뜻을 모아 서원 안에 사당(존덕사)을 세우고 위패를 모셔 선생의 학덕을 이어받고 추모하며 향사를 올리던 서원이다.

병산서원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저녁을 먹은 후 고택 체험을 하러 군자리로 돌아왔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던지 학생들은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했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출산문화를 체험한다는 프로그램으로 금줄 만들기를 했다. 새끼를 처음 꼬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더니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잘 따라 했다. 더불어 주민들이 만든 짚풀 공예도 함께 관람하고, 만져 보기도 했다.

다음 시간은 전통예절체험. 이번 시간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시간이다. 전통한복 입기와 공수 자세, 절하는 법과 인사법 등을 강의와 함께 체험했다. 하는 도중 학생들의 집중력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평소 생활 습관이 보이는 듯 했다. 바른 자세는 바른 사고를 낳기에 평소 예절과 몸가짐의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농가로 향했다. 농촌 길을 경운기로 이동했다. 도로가 있어 위험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 도착해서 먼저 감자·고구마 구이를 했다. 이것은 군자마을 주민들이 삼(麻)을 삶는 방식으로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먹는 놀이 방법이다. 미리 주민들이 구덩이를 파서 아궁이를 만들어 돌을 달구는 조금은 복잡한 방법이다. 학생들이 직접 고구마와 감자를 아궁이에 넣어 보고 물도 부어보기도 했다. 이것이 익으려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 시간에 추수 체험을 했다. 한 팀은 산약(안동의 특산품)을 캐보고, 한 팀은 콩 타작을 했다. 체험을 마치고 한 곳에 돌아와 익은 고구마와 감자를 먹었다. 인솔하신 선생님들이 더 신나 보였다.

이제 농촌체험이 끝나고 농사지를 때 부르는 농요를 따라 배우고,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있었다. 넓은 공터에서 원형으로 서서 저전농요 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나와서 따라 배웠다. 이어서 군자마을에서 행하는



• 고구마·감자 굽기(위), 마캐기(아래)



• 전통혼례 체험

제사 체험을 진행했다. 현관들에게 한복으로 갈아 입혀 나와 흥기에 따라 제사 의식을 체험했다. 제사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직 학생들이라 따지지는 않지만 어른들 사이에선 간혹 시비가 붙기도 한다. 체험을 마치고 안동댐으로 이동했다. 2년 전에 안동에는 월령교를 개통했다. 부부의 애뜻한 사랑을 주제로 만든 이 다리는 안동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된 곳이다. 이곳을 건너와서 헛제사밥을 먹고 다시 고택체험을 하러 군자리로 돌아왔다.

마지막 날 집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반은 예, 반은 아니오 라는 말을 들었다. 조금은 불편했던 모양이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돌렸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체험을 같이한 인솔선생님이 참 좋았다는 말과 우리는 행운아라는 말을 많이 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보람을 느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비록 짧은 시간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많은 인력과 정성이 들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진

행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내려왔었다. 그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문화자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상품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끌어 갈 것인가. 또한 이것으로 인해 문화 수혜자는 무엇을 배우고 얻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철저하고 세밀한 기획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안동문화원의 경우 1년 동안 많은 행사를 치른다. 평상시에 훈련한 것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합복권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글 _ 구경희 | 안동문화원 과장

대견한 3大 명犬

진돗개 · 삽살개 · 풍산개

충직 · 용맹 · 영리 ... 외국개들과 어깨 나란히

대한민국 대표 명견 전라남도 진도 '진돗개'



천연기념물 53호로 보호되고 있는 진돗개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나 고려때 중국 남송의 무역선이 진도 근해를 지나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자 배에 실려있던 개가 헤엄쳐 건너와 진도개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과 고려 말기 삼별초군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몽고의 군용견이 남아서 진도개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진돗개는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리함이나 충직함이 대단하다. 신경이 매우 예민한 편이며 주의력과 집중력이 뛰어나고 귀소성, 민첩성, 사냥에 대한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총 없이도 진돗개 혼자서 평소양을 하여 주인에게 쫓을 물어다 주기도 한다. 활기찬 두눈은 중간 크기로 약간 치켜 올라가 있으며 진한 암갈색이 바람직하다. 중형견으로 힘이 세고 골격이 튼튼하다. 머리뼈의 폭이 넓고 귀는 삼각형 모양으로 직립형이며 꼬리는 등위로 힘차게 말아올라 갔다.

키는 수컷이 48~53cm이고 암컷은 45~50cm이며, 털 빛갈과 무늬에 따라 황구, 백구, 재구, 호구, 네눈박이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나 돌연변이 유색견으로서 붉은 불개 바둑이 등의 색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2000년 6월 12일 김대중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시 '평화', '통일'이라는 진돗개를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는 문화재관리법과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1967년 1월 16일 공포)에 따라 보호 육성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국제보호육성동물로 공인 지정되었다. 1997년 2차로 개정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문화재관리법과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1967년 1월 16일 공포)에 따라 보호 육성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국제보호육성동물로 공인 지정되었다. 1997년 2차로 개정해 관리되고 있다.





왼쪽부터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제주개

한국인의 오랜 친구 경상북도 경산 '삽살개'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된 우리의 개이다. 긴털과 해학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삽살개는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에 널리 서식하던 우리의 토종개이다. 귀신이나 액운을 쫓는 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삽(쫓는다. 들어내다)살(귀신, 액운)개라는 용어 자체도 순수한 우리말로서 가사(歌詞), 민담, 그림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주로 귀족사회에서 길러져 오다가 통일신라가 망하면서 민가로 흘러나와 서민적인 개가 되었으며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애환을 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에 의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희생물로서 해방전후를 기점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한때 멸종의 위기에까지 이르렀으나 1960년대말 경북대 교



수들에 의해 30여 마리의 삽살개가 수집, 보존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하지홍(河智鴻) 교수에 의해 증식(增殖)되어 100여 마리가 집단 사육되고 있다. 삽살개 유래에 대한 3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 티베탄 테리어 계통의 장모종(長毛種) 개가 중국을 통해 전파되어 삽살개가 되었다는 설과 둘째, 중동에서 무역선을



통해 신라로 유입되었다는 설 셋째, 북방 기마민족이 남하하면서 유입되었다는 설이다. 삽살개는 색조에 따라 청삽살개와 황삽살개로 구분된다. 청삽살개의 경우 어릴 때는 짙은 흑색이나 자라면서 털갈이 과정을 거

쳐 흰털이 고루 섞이면서 흑청색 혹은 흑회색이 된다. 황삽살개의 경우도 어릴때의 짙은 황색이 다소 약해지면서 담황색을 띠게 되는데 이들 청삽살개와 황삽살개는 색조 차이를 제외하고는 구별점(區別點)이 거의 없다. 온몸이 긴털로 덮여 있는데 눈은 가려서 보이지 않는 삽살개는 귀는 누웠으며 주둥이는 비교적 뭉통해 진돗개처럼 뾰족하지 않다. 꼬리는 들려 올라가는 개체가 많으며 머리가 커서 언뜻보기에 수 사자를 연상시키나 체격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수컷의 평균 체고는 51cm, 체중은 21kg이며 암컷은 49cm에 18kg으로 측정되었다. 성품은 주인에 대해서는 충직하나 타동물에 대해서는 대담, 용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도 잡는다'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개'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풍산군 일대의 토착견이 승냥이(늑대)와의 교잡으로 고산 산악지대에 잘 적응하여 발전한 것이 지금의 풍산개라는 설과 시베리안 라이카와 중국의 고리드족 개의 후손이라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호랑이 등과 같은 맹수를 추적하고 사냥을 할수 있는 대담성을 가진 개는 풍산개와 시베리안 라이카 뿐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풍산개는 진돗개, 삼살개 등과 더불어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우리의 소중한 토종 개종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용맹하고 대범한 성품을 가진 개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함경남도 풍산군은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개마고원 일대에는 호랑이, 줄범(표범), 불곰, 늑대와 같은 맹수와 각종 동물이 많이 서식하는데 이러한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집집마다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산개를 길렀다고 한다.

풍산개는 사람에게는 순종적이고 온순하지만 동물 앞에는

민첩하고 용맹스러워 사냥개나 군견으로 활용된다. 평소에는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적이나, 상대가 적이라고 판단되면 단 일격에 급소를 무는 습관이 있다.

평상시에는 완만하고 느린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일단 산에 들어가면 코를 땅에 박고 비호같은 동작을 보이는 타고난 사냥개이다.

풍산개의 시력과 청력은 세계 어느 견종보다 우수하며 영리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용맹성과 더불어 한번 시도한 일에는 포기 할줄 모를 만큼 지독한 끈기와 인내력을 보인다.



지역의 명견들

사냥의 명수 제주도 '제주개'



제주개는 3000여년 전부터 제주에 서식, 사냥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수렵꾼들이 오소리, 꿩 사냥에 동원하기 위해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할 뿐 완전 멸종된 것으로 알려

려져 있었으나 1986년 제주축산개발사업소에서 제주전역을 조사해 제주시 삼양동에서 제주개 한 마리를 발굴했다. 진돗개와 모양, 색깔이 비슷하지만 진돗개는 꼬리가 말려 올라간 반면 제주개는 꼬리를 꼴꼴이 세우는 게 특징이다.

이마가 넓고 튀어나왔으며 주둥이가 좁아 전체적으로 여우의 두상을 한 머리형에 다리는 가늘지만 가슴이 넓고 꼬리털은 길다. 털빛은 주로 황색이 많으나 백색과 흑색도 나타난다. 성견의 경우 몸높이는 40~45cm,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행동이 민첩, 영리해 사냥을 잘한다. 노루, 꿩, 오소리 사냥을 잘하며 특히 오소리의 경우는 굴까지 따라 들어가 사냥을 한다. 다 자란 제주개의 몸길이는 1m 내외고, 체중은 20~25kg 정도로 수명은 12~15년이다.

그러나 제주개는 일제 강점기때 대부분 군견용으로 공출되고, 해방 이후에도 식용으로 도살되거나 수많은 잡종과 교잡이 이뤄지는 등 별다른 보전책이 없이 방치돼 왔다.

꼬리 없는 개, 경북 경주 '댕견'

'꼬리 없는 개'로 유명한 '댕견'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 끝부분에 꼬리뼈를 이루는 천골(삼각형 모양의 뼈)이

없어 꼬리가 아예 없거나, 손가락 한마디 정도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몸집이 진돗개보다 약간 크고 성격이 온순하며 머리가 좋은 편으로 성격이나 외형상 일반개와 구별된다.

수렵능력이 매우 탁월해 젓을 겨우 떼 어린 댕견도 야생멧돼지에게 덤벼 목덜미를 물어뜯을 정도로 용감하다. 사람들과는 매우 친하게 지낸다. '꼬리가 없어 재수 없다'는 이유로 멸시받아 멸종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어 천연기념물 지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붉은 늑대, 경북 영주 '불개'

눈과 코·입·털·발톱 등이 모두 붉은색인 '불개'.

경북 영주 인근 소백산에 살던 늑대가 집개와 교배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토종개. 눈·코·발톱 등이 붉은 색으로 '붉은 개'라는 말에서 유래돼 '불개'라 불린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송곳니가 그대로 드러나 늑대와 유사하다 보통 개와는



달리 발을 잘 써 나무를 잘 타며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20여년 전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이 살았으나 어혈을 풀어주고 환자의 회복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글 _ 김보라 기자



민속회화사 놀부

“한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민속예술품 수집광 김순진 (주)놀부 대표이사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한 민속품이 실패, 도자기, 맷돌, 바보그림 병풍, 호패, 노비문서 등 3개 창고에 수북히 쌓여 민속박물관 하나 지어야 할 판이다.

“초상난 데 춤추기, 불나는데 부채질하기, 우는 아이 똥 먹이기, 우물결에 똥 누어 놓기, 애호 박에 말뚝박기, 옹기장수 작대치기” 심술도 이런 심술이 다 있을까? 바로 놀부 심술이다. 흥보가에서는 아예 놀부에게는 오장육보가 아닌 오장칠보가 있다고 말한다. 보통사람과 달리 심술보 하나가 더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놀부가 심술긋긴 하지만 덩덤한 흥부와 달리 묘한 매력 이 있다.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식을 많이 낳고 형에게 의존하려 하는 흥부에 비하면 매우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지닌 인간상으로 놀부를 좋아라하는 ‘팬’들도 많이 생겼다. 그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의 생김이 밋든 곱든, 우리문화속의 놀부는 걸터다니는 문화상품이다.

‘한식의 표준화’로 서양음식에 맞서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사거리 가까이 자리잡은 주식회사 놀부의 본사를 찾았다. 바쁘게 결재를 하던 주인장 놀부가 기자일행을 쳐다보며 환하게 웃음을 건넨다. 주인장은 여성 CEO 김순진씨(55). 우리나라 대표적 외식전문기업인 (주)놀부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그녀는 구랍 29일 농림부로 부터 큼직한 연말선물을 받았다. ‘2005년 전통외식산업 발전 유공자’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우리네 전통음식인 한식을 표준화하고 메뉴얼화함으로써 우리 전통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는 피자와 돈까스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우리것’에서부터 아이템을 찾고 ‘우리입’에 맞게 음식문화를 개선해 온 것은 상을 받고도 남을 만큼 매우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19년전 5평 남짓한 작은 식당 ‘골목집’의 주인 아줌마였던 그녀는 오늘날 전국에 5백30여개의 가맹점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외식프랜차이즈기업 CEO에 올랐다. 그야말로 전통문화에서 블루오션을 찾아 비즈니스로서 개가를 이룬 것이다. 어떻게 보면 놀부는 그 이름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놀부의 ‘놀’자도 모르는 서양인이 놀부의 간판을 봤다면 ‘화이즈 놀부?’라고 물었을 것이다. 놀부에 얽힌 이야기 실타래가 슬슬 풀려가는 모티브로 역할 할 게 분명하다.

길거리에 나서면形形色색 수많은 음식점 간판들이 메뉴판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 중에

눈에 탁 띄는 간판, 바로 놀부다. 놀부? 이 상호를 처음 접하는 것만은 아닌데도 가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놀부는 그래서 음식맛이 좋은지 모르겠다. 오전 일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웃음 한방으로 산산히 날려보내고 자연스레 밥상앞에 앉았으니.

어쨌든 놀부는 무엇보다 우리문화를 토대로한 비즈니스의 시도라는 점에서 박수칠만 하다. 현재 놀부에는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놀부집항아리갈비’, ‘놀부유황오리 진흙구이’, 상차림 ‘놀부집’, ‘놀부명가’, ‘놀부술뚜껍삼겹살’, ‘놀부순대국밥’ 등 8개의 브랜드가 있다.

민속품 수집광 ... 창고 3개에 꼭 차

하지만 놀부는 놀부가 아니고,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 일종의 한국문화이다.

“우리네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차리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 모두가 우리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한식 음식점 ‘놀부’를 운영하며 그녀 나름대로 터득한 문화관이다.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 역시 어느 순간 불쑥 솟아오른 게 아니다. 놀부가 심술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김대표에게도 남모르는 ‘칠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심술보가 아닌 민속품. 어린 시절부터 물건이라면 뭐든지 수집하기 좋아했던 김 대표가 하나 둘씩 모은 민속품이 이제 본사와 공장, 집안 등 3개 창고에 수북이 쌓였다고 말한다. 개중에는 여인네들의 생활과 함께 했던 실패, 뒤꽂이, 노리개로부터 시작해 도자기, 안경집, 물확, 바보그림(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는 그림)병풍, 호패, 노비문서, 분재기 등 당시 행정이나 경제 여건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자료까지 다양하다. 더욱이 향아리나 다듬이돌, 절구통, 맷돌은 수천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민속품을 애호하던 김 대표는 동네 굴뚝의 모양과 문양만 보고도 반상(班常)의 신분을 알아맞춰 한때 ‘굴뚝 부인’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존하려면 조만간 민속박물관을 하나 지어야 할 판이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옛것이 있어야 새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민속품들을 간직할 수 있었나 봐요. 옛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다 보면 조상들의 마음과 정성이 살포시 스며져 있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집안 생활용품인 다듬이돌에도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뜻에서 목숨수(壽)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사회공헌에도 힘쓰는 ‘문화기업가’

거실에 장정 서너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대형 연자방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는 민속품 수집 못지 않게 늦깎이로 배움에서도 악착같았다. 바쁜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이 45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데 이어 5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52세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틈틈이 다닌 대학의 최고위 과정만도 자그마치 10여개. 이런 기회들을 통해 5평 남짓한 음식점을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필요한 인맥과 지식을 쌓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녀의 이야기는 몇해전 큰 인기를 끌었던 TV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그녀의 성공은 그녀만의 성공이 아니어서 더욱 아름답다. 사내에서는 ‘한 밥술 경영’으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내부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고 밖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아는 법. 너무나 추위 2백원을 주고 전당포에서 반코트를 사입고 시작한 서울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그녀는 사업초창기 불우이웃

들에게 김치를 나눠준 것을 시작으로 고아원에 김치를 보내주고 소외된 이웃과 불우 아동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히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른바 ‘놀부사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불우아동을 초청해 SBS 라디오측과 ‘놀부사랑 나눔 작은콘서트’를 열어 음식만이 아닌 문화로 훈훈한 연말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99년부터 국내 외식업계 최초로 ‘대학생 외식 논문 현상 공모전’을 연 이래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가 하면 외식 관련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외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한편 그동안 공들인 한식의 표준화를 토대로 앞으로는 한식의 글로벌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벽안의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식 브랜드로 얼마든지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문화를 계승하는 길이란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엔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다. 우리문화의 정수인 한식을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문화 수출가’ ‘문화 기업가’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싶다.

“버선 한 짝을 깊고 깊다 보면 원래 것은 다 없어지고 천조각들로만 붙어있게 되죠. 음식도 문화도 그런 것처럼 새로운 것과 충돌하고 융합한다고 생각해요. 혼한 말로 퓨전 말이예요. 하지만 버선이란 그 본체가 없어서는 버선이 안되는 것처럼 우리문화도 그 바탕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문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문화를 외국인에게 셀링하려는 그녀의 ‘글로벌 나침반’이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 프리랜서 사진작가

“통일의 다리는 뭐니뭐니해도 문화예술”

탈북 주민 새터민들의 희망이야기

눈이 내리는 지난 해 12월 17일은 따뜻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지역 새터민 지원기관연합회, 그리고 새터민 자원봉사단 ‘푸른 하늘’의 주관 하에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새터민 희망이야기 “반갑습니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파도 잇은 채 많은 사람들이 행사 1시간 전부터 몰려들어 줄을 서서 북한음식인 함경도 만두, 평양순대, 녹두지짐 그리고 북한산 토종 “평양군밤”을 맛보며 북한의 음식문화를 체험하였다. 마치 행사장은 여느 잔치집과 흡사했다. 시종일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고도 남았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에서는 대전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이 자기들의 희망이야기를 담아 대전시민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강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을 피력했다. 가수 윤진원과 강산에, 정은혜무용단도 함께 참가해 남북한의 문화를 실감케 했다.

노래 ‘반갑습니다’로 막을 올린 무대에서는 곱고 아름다운 우리 부채춤을 곁들인 ‘아리랑’ 노래와 멋진 남성사중창 ‘우리는 하나’ 그리고 봄이 돌아오면 고향에 가서 꼭 한번 부르고 싶은 가족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 ‘고향의 봄’이 불러졌다.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던 청소년의

‘아리아리’, 사람들이 다들 굉장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마술 등이 연이어 펼쳐졌다. 비록 완숙한 문화예술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새터민들의 숨결과 정성이 배어져 나와 800석의 객석을 가득 메운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후덥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미래 통일시대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충돌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분야가 아닌 한민족이면 너나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출발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치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순수한 문화행사로 치르기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애초 기대한 것에 비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예술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 자리였다.

남과 북도 이러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60여 년의 분단 속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였던 우리 민족이 이질적인 국가 행태와 사회체제에서 상당부분 이질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한의 문화는 국가가 문화와 예술의 정치성을 강조하고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사상의 자유, 비평의 자유, 문화 창작의 자유는 없었으며 예술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조선노동당의 예술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인해 제한적인 문화를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정책의 주 방향이 수령의 이상화에 돌려져 있음은 물론이다.

남한은 분단 후 개방적인 사회체제를 선택한 반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한 결과 남한에는 외래문화가 훨씬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와서 난생 처음 보는 공연을 보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북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의 다 벋은 차림으로 춤을 추는(지금은 상당히 즐기는 것으로 되지만)그런 모습은 아마 북한에서는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일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를 보면 남과 북이 향유하는 하위 문화 및 대중문화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듯이 어느 문화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6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만큼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한다.

북한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 온 우리 새터민들은 이 땅에 와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은 언어 문제였다.

언어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1960년대 후반기에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혁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다시 말하면 ‘화약내가 팍팍 풍기는’ 그런 언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항시 “승냥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 부시자!”, “모내기 전투”, “100일 전투”,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전투장” 등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문구에 익숙해 있으며 그 말을 평상시도 아무렇지 않게 쓴다.

또한 말과 글은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있게 통속적으로 써야 한다며 말 다듬기 사업을 통해 한글만 쓰다보니 오랫동안 한자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말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해 혼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도 신문이나 잡지책을 보려면 한자가 너무 많아 해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기울여야 하고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한자어를 해석하여 표현하는 말, 표기법의 차이, 의미의 차이 등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이 참 많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던 어떤 분도 훗날 나에게 말하길 처음 만났을 때 “일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대단히 기분 나빴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일 없습니다”와 남한에서 말하는 “일 없습니다”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극단적으로 말해 주는 예라 하겠다. 북한의 “일 없습니다”는 남한의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중간에서 ‘번역’을 해주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상황에 온 것이다.

특히 한 문장의 말속에 태반이 영어인 여기 분들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문구는 다시 해석을 받고서야 알아들을 수 있는 형편이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0여년의 세월에 참

많이도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래도 남과 북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노래는 가락보다는 노래 말, 다시 말하면 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다수 가요는 수령의 이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수령의 위대성과 현명한 '령도성', 고매한 덕성 그리고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가사에 담지 않으면 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으며 세상에 그 노래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에도 한국의 대중가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상성에 초점을 맞춘 북한가요보다는 경쾌한 리듬으로 일반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한국가요가 북한주민들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공식적으로 한국가요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춘남녀들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또한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노래들을 애창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가요가 아닌 연변노래로 알고 부르는 것이다.

나 역시 북한에 있을 때 '애모' '너만을 사랑했다' '남행열차' '찰랑찰랑' '신토불이' '사랑의 미로' 등 50여곡이나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국가요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었지만 '갑순이와 갑돌이' 같은 노래는 연변노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눈물 젖은 두만강' '타향살이' '홍도야 우지마라' '고향의 봄' 같은 가요는 북한사람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확실히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의 동질감을 아직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생활 문화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왔으며 가정은 핏줄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과 장례 등의 큰일을 치를 때에 이웃과 친척이 서로 돕는 전통이라든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가짐 등은 아직도 남과 북에 공통으로 남아 있는 풍습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는 물론 여기처럼 예식장에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도 없고 죽은 이를 위해 화장하고 추모하는 장례식장 같은 것도 일반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례를 하고 차례상을 차리는 고유한 우리 민족의 전통성은 아직도 이어 가고 있다.

북한에서의 대부분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 집에서 따로 올리고 신랑은 평소에 입던 양복을, 신부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가슴에 조화를 달고 상차림을 한 각기 자기 집에서 식을 올린다. 여기서도 60년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혼례식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무튼 간에 남과 북은 조상들의 옛 풍습을 살려나가면서도 현대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나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새터민들은 함께 모여 북한음식도 만들고 시간가는 줄도 모른 채 공연 연습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비

추던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진행하는 문화행사가 대전시민들에게 어떻게 와 닿을 것이며 과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 과연 이렇게 큰 행사를 원만히 치러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새터민들이 여기 대전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비록 북한에서 왔지만은 타국이 아닌 조선의 반쪽 땅으로 새 터전을 찾아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치른 후 우리 모임의 한 새터민이 말한 이야기가 기억난다.

“이번에 우리절로 만든 공연에 참가하고 나니 새로운 마음도, 욕망도 생긴다. 지지리 놀러 살았던 내가, 아니 나도 그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때까지는 남들하고 대화조차 하기 싫고 어딘가 모르게 여성버성한 서먹함이 있었어도 더욱 더 가까워질 앞으로의 남과 북처럼 나 역시 이웃주민인 대전시민들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려 한다. 이 사회 현실 속으로 더 깊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나쁜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좋은 것부터 배우려 한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도 살수 없는 것이 이북의 현실이라면 여기는 나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선진국의 나라로 세계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행하게만 느껴지던 이 몸이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근육이 살아나는 것 같다. 두 번 다시 태어난 인생을 새로운 출발로 시작하고 싶다. 숨기려고만 했던, 영원히 감추려고만 했던 내 고향 이북. 그리고 내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며

살아가려 한다. 내 고향을 숨기면 나 김지희를 숨긴다는 것을 알았기에! 태어난 내 고향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때론 이상하게 보는 여기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나 이북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자체가 이상하다고 당신과 나의 차이는 태어난 고장만 다를 뿐이라고...”

이 말이 어찌 한 사람만의 심정이겠는가. 우리 모두의 똑같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참으로 이번 행사를 하도록 성심성의껏 도와 준 전국문화원연합회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자기 스스로가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한 ‘문화행사’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내 문화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원과 우리 새터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여 그것을 통해 여기 남한의 문화에 빨리 익숙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북의 문화를 많이 알려줌으로 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한 서로의 문화이해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우리 ‘푸른하늘’ 봉사단은 지역문화축제들에 우리의 문화공연을 빠짐없이 참가시킴으로서 남과 북의 하나 된 통일문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생각이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현무 | 새터민봉사단 ‘푸른하늘’ 대표

2월 15일 권용태 회장 2기 출범

2월 15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로 선임된 부회장단과 이사를 포함하여 시·도지회장이 상건례를 겸한 첫 이사회를 가진 후 신·구 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권용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와 그 시대의 생활문화가 접목되어 새로운 민족문화로 혹은 향토 문화로 자리매김해 왔음을 상기하면서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따로 떼어놓고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부

설 문화동력연구소 운영을 활성화시켜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 대안을 용역보고서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 직전에 가진 이사회에서는 새로 추대될 11명의 운영위원을 아래 명단과 같이 확정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취임식이 열리기 1시간전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단 임원은 동아일보사를 방문해 김학중 사장에게 동아 꿈나무 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

제25대 임원 현황

회장 권용태

부회장 이선재 (마포문화원장)

허문명 (부평문화원장 · 인천시지회장)

최종수 (과천문화원장)

박영수 (청주문화원장 · 충북도지회장)

1명 유보 (전남지회 추천)

이사 김영섭 (동대문문화원장 · 서울시지회장)

정연구 (부산시지회장)

정명표 (서구문화원장 · 대구시지회장)

문병란 (광주시지회장)

한근수 (유성문화원장 · 대전시지회장)

김 철 (중구문화원장 · 울산시지회장)

김종기 (경기도지회장)

이대근 (춘천문화원장 · 강원도지회장)

박응진 (논산문화원장 · 충남도지회장)

이복웅 (군산문화원장 · 전북도지회장)

조남식 (전남도지회장)

이만희 (상주문화원장 · 경북도지회장)

박현호 (창원문화원장 · 경남도지회장)

양중해 (제주도지회장)

김 종 (광주서구문화원장)

김형순 (동해문화원장)

이진자 (예산문화원장)

김복현 (익산문화원장)

채대진 (문경문화원장)

홍관표 (김해문화원장)

문광부 (담당국장)

감사 오용원 (평택문화원장)

윤수옥 (장흥문화원장)

※ 이사 27명 · 감사 2명(총 29명)

<2006 운영위원 현황>

김영섭 (동대문문화원장 · 서울시지회장)

조성남 (대전중구문화원장)

오수길 (고양문화원장)

권연옥 (천안문화원장)

정정희 (당진문화원장)

서 승 (전주문화원장)

정경진 (니주문화원장)

이현석 (함평문화원장)

김교승 (구미문화원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

이호균 (남해문화원장)

제25대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취임사

지난 3년간 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던 제24대 임원 여러분과 새로 선임되신 임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전국 지방문화원장님들과 시·도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분에 넘치는 만장일치의 추대로 재신임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로 3년 전 취임사에서 저는 우리 지방문화원이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문화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문화단체도 따라오지 못할 전국 네트워크라는 고도의 인프라를 우리는 갖추고 있으며 또 척박한 토양위에 사명감 하나로 우리 문화를 키워 온 지방문화원장님들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이 건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3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많은 과제와 난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문화가족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때 민족고유의 전통문화와 그 시대의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새로운 민족문화로, 혹은 향토문화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문화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저변이 확대일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전통문화의 생성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따로 떼어놓고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연합회와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각종 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부설 문화동력

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그 대안을 보고서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4개 문화원이 2개로 축소 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 법 부칙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4개 문화원이 존속되도록 입법 당국과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은 앞으로 서울을 위시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에 우리 연합회로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시·도지회의 활성화문제, 각종 기금사업의 합리적 운영문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문화원의 실버문화센터로 특화할 문제, 지방문화원의 정보화사업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또 해마다 많은 문화원장님들이 후진들에게 원장직을 물려주고 현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느 누구보다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 서 오면서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문화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소속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분들로 가칭 '전국문화원장동우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취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

문화공간 조성 추진

문화관광부(주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주민 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2006년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부,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2006년도 문화관광축제가 선정됐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등 5개 축제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양양송이축제', '강경전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하동야생차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9개 축제는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구약령시축제'와 '인제빙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한산모시문화제', '남원춘향제', '광주김치대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연천구석기축제', '풍기인삼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북제주) 등 13개 축제는, 특화된 축제로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

했다. '평창효석문화제',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꽃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전국음성품바축제' 등 25개 축제가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다. 예비축제는 1~3년간의 운영결과를 평가해 그 성과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함으로써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의 지역축제 700여개 중에서 광역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크고 축제의 콘텐츠 등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문화관광축제의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위촉한 축제 평가위원의 현장 참관 평가와 축제 전문그룹의 설문 평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상품화 평가 등 다면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도약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 가져



제주도는 10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관광업계 관계자와 도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김태환(金泰煥) 제주지사는 "제주방문의 해를 계기로 제주도가 동북아 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방송연예인 고두심, 박순천, 김용건, 현석씨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제주도는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마케팅 강화,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이벤트 및 축제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 도민 참여촉진 등 5대 분야에 25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류 활용 관광 상품과 일 본인 관광객 웨딩상품을 마련하고 제주관광카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제주의 화산석을 활용한 돌문화공원을 만들고 농촌 전통문화체험 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한다.

진주 남강변 문화유적 등 관광테마거리 조성

진주시는 시가지를 S자로 가로지르는 남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상품화하고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올 3월 완공을 목표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관광테마거리를 특색있게 조성함과 아울러 관내 문화유적, 한국전통요리 등 유물을 패

키지상품화 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전방위 홍보와 관광객유치 마케팅 전개로 관광산업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통영~대전고속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활용, 천년고도 이미지 제고 및 볼거리 제공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문화예술산업에 357억원 투입

경북도는 올해 문화예술산업분야에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농어촌지역 문예회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293억원이 투자되고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민속놀이 보전,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도 3억5천만원이 투자된다. 또 도내 38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미술, 연극 등 기초예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단위 예술대회와 전국무용제 개최 등에도 힘써 창작활동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밖에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문경시 명상월빙센터 조성에 힘쓰고 오는 12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열리는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준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천안시민의 종’ 제막·타종식



천안문화원 (원장 권연옥)

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천안시 문

화동 소재 구 천안시청 청사부지에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천

안시민의 종’ 제막을 겸한 타종식을 가졌다.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문낭독과 각 기관장 및 일반 시민들이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우리 역사 문화 재미나게 배워요!

올 한 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2~3월에는 ‘삼국유사 800년 특별전’ 이, 4~5월에는 국내에서 출토된 복식과 미라 100여점이 전시되는 ‘출토복식 명품전’ 이 열린다.

또 6~8월에는 ‘남북 전도공예전’ 이, 9월 중에는 유럽 등 외국 박물관의 유물이 전시되는 ‘국제교류전’ 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저녁에도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요일별 야간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려운 역사

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의와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다.

5월 10일~7월 12일과 9월 13일~11월 22일에는 다양한 역사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박물관 대학’ 이, 8월 1~18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의 책과 부채를 만들어보는 ‘어린이 역사탐험 교실’ 이 진행된다.

이밖에 4월 6일~6월 16일, 9월 7일~11월 17일 운영되는 ‘전통문화교실’ 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조선시대 서울의 자연환경, 해시계 등에 대해 배우며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다.

〈출처 : 연합뉴스〉

전주 한옥마을 정보 위성통해 안내



내년부터 휴대전화 또는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안내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은 최근 ‘한옥마을 유비쿼터스 관광’ 제안이

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월부터 사업에 착수, 내년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마을 유비쿼터스 기술은 한옥마을의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한 뒤 이동통신 위성과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을 통해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한옥마을 내에서 유물, 유적 및 시설물과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PDA, 전통문화체험 단말기로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등으로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한국어 · 태권도 등 우리문화 알림이 역할

겨울방학을 맞아 제3세계와 저개발국
가로 자원봉사를 떠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
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 장애아동
돌보기, 주택 보수, 한국어 교육 등을
하며 해당 국가의 사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점도 딸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서울대 · 한국외대 학생 등 20명은
PAS가 주관하는 베트남 청년해외봉사
활동에 참가하여 호찌민에서 흥방대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 민속놀이, 태권도를 교육하며 문
화교류를 위해 전통혼례와 한국음식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연다. 이화여대

국제워크캠프 동아리 '이화캠프' 회원
8명은 16일부터 보름간 인도 방갈로의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찾아가 이들을
돌보며 한국어 등을 가르친다. 전남대
생 박민철씨(정치외교학과 4년) 등 대
학생 2명도 5일부터 28일까지 아프리
카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해 농촌지원 활동을 펼친다.

경북대는 계절학기 해외봉사활동 과목
을 마련, 라오스 비엔티안, 베트남 하
노이, 중국 쿤밍, 필리핀 칼람바 등 4
개 지역에 파견했다. 각지에서 건물 수
리, 페인트칠, 담장 설치 등 노력봉사
와 한국어 · 태권도 · 레크리에이션 · 영
어교육 등 교육봉사, 한국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문화봉사 활동 등을 한다.

조선 '왕릉 · 원' 세계문화유산 추진

우리나라 전통경관과 독창적 왕릉문화
를 보여주는 조선시대 왕릉과 원이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됐다.

문화재청은 최근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 53기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했다고 밝혔
다.

조선시대 왕릉문화는 '능(陵)' 과 '원
(園)' 으로 구분되는데 왕릉으로 불리는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등의 무덤을 말한다. 현재 왕
릉은 40기, 원은 13기가 남아 있다.

왕릉과 원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에 근거해 조성되는데 시대변화에
따라 그 형식이 변모하는 등 시대정신
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왕과 왕비 등
에 대한 제례인 산릉제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왕릉문화와 달리 우
리나라만의 전통적인 경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데다 형식이나 공간배치 등
독창적인 예술적 측면도 뛰어나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는 해당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정
식 등재하도록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
건"이라며 "앞으로 학술조사 등을 통
해 가치를 조명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웃지 않는’ 한국, ‘웃음 강좌’ 열풍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 보도

“새해에는 활짝 웃자. 웃음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약’인 웃음을 제대로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과 독일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한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웃음에 인색하다. 한국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웃으면 복이 달아난다” “실없이 웃는 여성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독일 역시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 데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 흐린 날씨가 겹치면서 웃음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두 나라 사람 사이에 웃음 특강이 유행하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과학자들은 웃으면 뇌가 자극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면서 통증을 줄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도 분비된다는 것이다.

미국방부는 이런 웃음의 효과를 이용, 이라크 파병 군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콜로라도 등에 ‘폭소 클럽’을 만들었다. 이스라엘도 요르단 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웃기 클럽’을 열어 이스라엘 정착민의 압박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반면 IHT는 한국의 웃음 배우기 열풍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진단하면서 광진우체국이 500명 전 직원에게 일과 후 전문강사의 웃음 강좌를 듣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화점 점원들이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면서 미소를 띠도록 교육 받고, 정치권 지망생들이 표를 얻기 위해 웃음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한국식 웃음 열풍의 단면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출처 : 스포츠한국)



지방마다 해맞이 행사 열려

청원 문의문화재단지 해맞이

청원문화원(원장 오경세)에서는 새해 첫날 6시부터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소망 기원제를 시작으로 대북 타고 및 공연, 모닥불 피우기, 소원 편지쓰기 등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포천 병술년 새해맞이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새해를 맞아 청성문화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청성산 새해맞이 등산을 했다.

충주 일향산 해맞이

충주문화원(원장 정휘철)은 일향산에서 북춤공연, 희망풍선·소원 종이날리기, 먹거리 나누기 등을 하며 덕담 시간도 함께 가졌다.

청계산 해맞이

성남문화원(원장 남선우)은 청계산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귀마개 하나씩을 선물하고 떡과 해장국을 제공하며 덕담을 나눴다.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평창문화원장 고창식 씨 선임



평창문화원은 지난 12월 7일 문화원 예술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고창식(高昶植 64)씨를 새 원장으로 선임했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평창군 기획감사실장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고 원장은 두 명의 원장 임후자 가운데 경선을 통하여 90%를 득표했다. 평창문예회관에서 가진 취임식에는 권혁승 군수와 이수현 의장, 이대근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장 및 이인선 평창경찰서장 등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했다.

거창문화원장 정주환 씨 선임



거창문화원은 지난 12월 19일 가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주환(鄭住煥 66)씨를 새 원장에 추대하고 1월 23일 거창문화센터에서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임 정 원장은 거창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남도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국제통상협력실장, 진주시부시장, 초대 및 2대 민선 거창군수를 역임했다.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의 집 위탁운영 주체로 결정

당진군 조례 규정에 따라 '당진군 문화의 집' 운영 공고에 참가한 당진문화원(원장 정정희)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진문화원은 향후 3년간 당진 문화의 집을 생활 속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소식 (관련기사 2면)

전통연 계승자 확산

통영문화원(원장 김세운)은 통영 전통연의 계승자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실버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만들기 체험

사천문화원(원장 오필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만들기 체험 행사와 추억속으로 사라져 가는 연날리기대회를 가졌다.

짚풀공예제작

의령문화원(원장 김홍석)은 짚풀공예(빗자루, 계란꾸러미, 삼대기, 짚방석, 짚신 등) 제작 및 실버예술벼룩시장을 마련하고 생태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절교육단 강사양성 워크숍

대전 동구문화원(원장 신호철)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예절전문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이 분들에게 향후 청소년 예절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도에서 수제차 생산까지

강진문화원(원장 원용호)은 다도예절과 전통야생 수제차를 직접 재배·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예, 시조창 강습

산청문화원(원장 정태수)은 서예와 시조창에 조예가 깊은 노인들에게 지역 아동들에게 서예와 시조창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충주문화원(원장 정희철)은 1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도우미 프로그램

광명문화원(원장 안수남)은 공연장·전시장 등의 안내 관람 예절에티켓을 배우고 도우미로 활동할 어르신 문화도우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옛날이야기프로그램

김해문화원(원장 홍관표)은 실버하모니카연주단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의 정신과 역사를 한 눈에’

1월 17일 고창문화원역사관 개관식 가져

1월 17일 오후 2시 문화원 2층 디지털영화관 및 역사관에서 이강수 고창군수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원 역사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기화 원장은 고창문화원의 조그마한 혁명을 위해서 큰 몸부림을 쳐 보았다고 서두를 꺼내며 선사문화 유적과 백제가요 다섯 개 중 두 개(선운산가·방등산가)가 고창에서 나왔으며 신재효·진채선 등의 명창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음을 알렸다. 뿐만아니라 임진·정유양란 등 국난을 맞아 의병항쟁으로 구국에 앞장 선 72인의 선비들이 쫓겨간 의향 고창으로서 강직한 선비의식의 바탕위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민족정기를 일깨워 주었음을 상기하면서 고창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 2층으로 총 70평 규모의 역사관 건물은 2000년도에 건립되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전시 시설을 갖추지 못 해오던 중 이번에 1억 2천만원(도비 : 3,600만원, 군비 : 8,400만원)을 지원 받아 개관하게 됐다.

1층 전시실 입구에는 토속신앙의 대명사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는 5거리 당산이 서 있는데 고창읍 읍내리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14호로 지정된 5거리 당산의 모형이다. 또 사진자료 등으로 전시하고 있는 고인돌 무덤은 2천여기가 고창군에 밀집되어 있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조밀한 분포지역으로서 세계문화

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선운산지역에서 출토된 철설(鐵屑)은 야철지(冶鐵地)의 쇄땀 잔해물로서 귀중한 유물이라고 한다.

고창의 옹관은 일명 독무덤으로 청동기시대 이래 사용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옹관의 길이가 60cm 정도로 보아 어린이를 묻기 위해 사용된 관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고창의 토성(土姓)으로 현존하는 11개 성씨(存姓)와 없어진 38개 성씨(忘姓)를 고창·무장·흥덕현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았으며 모양성(牽陽城)으로도 불리는 복원된 고창읍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축소모형도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창지역의 백제가요, 판소리의 사설을 정리한 동리 신재효의 판소리사설집과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 그리고 국창 김소희의 애장품이었던 소리북과 소리음반이 전시되어 있다.

고창을 대표하는 인물과 선비로는 주막집 거위를 지혜로 살려 낸 세종조의 명신 대제학 윤



▲ 이기화 고창문화원장이 고창문화역사관을 소개하고 있다.



회(尹淮)를 비롯해서 명나라 천자를 감동시켰던 김안절(金安節), 호남실학의 거두 황윤석(黃胤錫)과 최근에는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 그리고 국무총리 출신의 김상협, 진의 종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인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동학혁명의 시발지로 진봉준 장군이 이곳 고창 산내면 죽림리 당촌에서 태어나 녹두장군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소개한 것을 비롯해서 59인의 독립유공자 이름이 3면벽에 가득하게 적혀 있다. 또 고창군민들의 성금으로 설립하여 민족사학으로 출범한 고창고등학교의 전신인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연혁에 이르기까지

고창의 정신과 역사를 집약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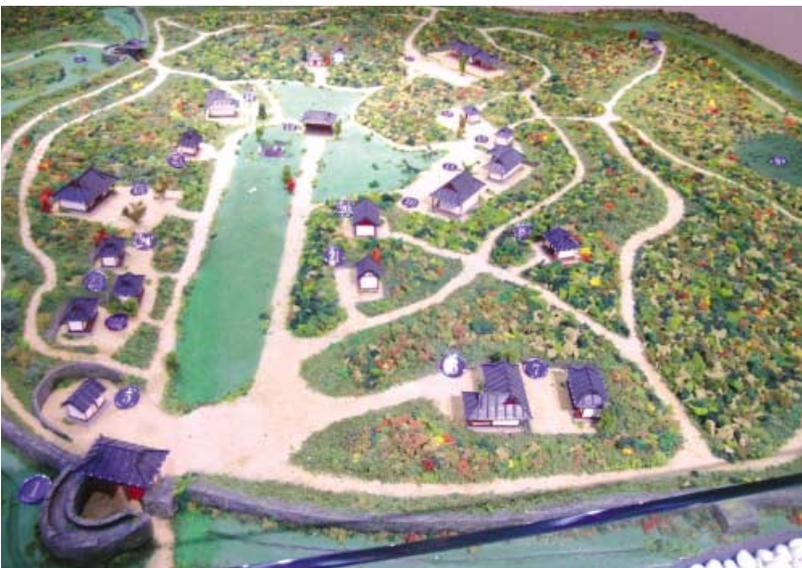
고창문화원역사관 개관에 따른 스케치를 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흔히 '고창' 하면 먼저 고인돌 유적지와 선운사를 생각한다. 그 밖에 고창 수박으로도 유명하다. 비옥한 황토에 뿌리 내리고 최적의 온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옛 선인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취락을 형성하고 살아 왔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그래서 이기화 고창문화원장은 바쁘다. 움직이는 향토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원장은 불편한 노구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향토 사료를 확인하고 발굴하면서 또 체계화해서 고창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

'향토사의 올바른 맥과 뿌리를 찾아내고 향토 고유의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일은 매우 값지며 현대판 선비들의 뒷'이라고 집념의 일단을 밝히면서 '꽃을 찾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바탕 정신과 맥을 찾는데 문화원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집부)





• 5.3km에 이르는 돌담이 아름다운 외암 민속마을 길

돌담길 끝에 아스라한 향수 옛 향 가득한 민속마을을 찾아서

아산 외암민속마을, 안동 하회마을

초가 굴뚝위로 밥 익는 냄새마저 풍경이 되고,
막다른 듯 휘어진 돌담길 끝에선 당장이라도 옛 친구의 부름이 있을 것 같은 곳.
불지핀 아궁이 위로 무쇠솥은 쇠쇠 쇠소리를 내고,
솔뚜껑 사이로 치어-익 한줄 땀망울이 흘러내리면
아궁이결의 어머니는 매운 연기에 부질없이 눈물을 훔친다.
그렇게 오래된 풍경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져 보존이란 포장지에 곱게 쌓여있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늦겨울의 싸늘한 기온이건만, 민속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그 한기를 느낄 새도 없이 과거의 기억으로 빨려든다. 저만치 황톳길, 돌담길, 초가지붕이 세월의 나이테를 각아 내리는 까닭이다. 마을입구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팽이 치는 아홉 살 소년의 모습으로, 또 돌담 길 어귀를 돌아서면 연줄을 부여잡은 열다섯 소년의 모습으로... 비록 그곳이 내 고향은 아니어도 모두의 고향처럼 가장 닳아 있는 그곳,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과거의 역사가 읽혀지는 듯한 2곳의 민속마을을 소개한다.

사극·영화촬영지 1순위 아산 외암민속마을

드라마 '야인시대'를 본 기억이 있다면 또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나 '취화선'을 기억한다면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을 외암 민속마을에서 마주할 수 있다. 옛 풍경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이곳은 그만큼이나 영화나 사극 제작자들로부터 애호되고 있는 공간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곳 외암 민속마을이야 말로 굳이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삶의 터전 그대로가 보여지고 있는 곳이다.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약5km에 달하는 돌담길도 눈길을 잡기 위한 인공물이 아니고, 마을초입의 물레방아나 그 위로 아담한 정자, 마을 곳곳의 연못 등등 그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성되어 있다. 특히 60여 호에 이르는 집들은 실제 마을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다른 민속 마을에서처럼 아무 문이나 박차고 들어가는 안 된다.

중요 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은 충청도 지방의 전형적인 반촌(양반들이 많이 사는 마을) 형태를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500년 전부터 부락이 형성되어 이어져 온 곳으로 현재 남아있는 60여 호의 집중 대부분은 허름한 초가의 모습이지만 그 중 10여 채의 기와집은 기세등등한 솟을대문이 보여주듯 과거 양반댁의 위엄을



• 외암 팜스테이 생활관



• 옛 모습 그대로의 연지방아



• 외암마을로 오르는 입구



• 연엽주를 빚어 판매하고 있는 참판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집은 모두 100년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집집마다에는 가옥 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 지명을 따서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참봉댁, 영암댁 등의 택호가 정해져 있다.

눈길을 끄는 외암 민속마을의 또다른 풍광 중 하나는 5.3km에 이르는 돌담이다. 돌담길을 따라 한바퀴 휘 돌아나오면 마을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셈인데, 자연에서 얻은 막돌들을 그대로 올려 쌓은 모습은 정교하기도 하고, 구불구불 이어진 그 느낌이 단아하고 아름답다. 돌담과 함께 마을 곳곳을 이어 흐르는 냇물과 집집마다 조성된 크고 작은 연못도 눈에 띄는데, 그것은 마을 뒷산인 설화산이 불기를 내뿜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 불기운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조성하였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발길 잡은 안동 하회마을

1999년, 4월의 따스한 봄바람처럼 귀한 봄 손님의 발길이 안동에 닿았다. 그것은 세인의 관심거리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속속들이 간직

한 하회마을이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 인자한 기품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은 전통이 전통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하나의 큰 역사였다. 그 날을 기념하여 하회마을 입구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방문 기념관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하회라는 지명은 낙동강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S자 곡선을 그리며 마을을 휘감아도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풍토지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겸암 류운룡 선생과 서애 류성룡 선생 등 많은 고관들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흔히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이곳은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기념관

허씨, 안씨, 유씨 3성씨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그 시작은 허씨로서, 최초로 하회마을의 터전을 이룬 것은 허씨였고, 안동에서 유명한 하회탈의 제작자도 허도령이었다고 전한다.

다음으로 광주안씨인 경상감사 안성이 부임 후 하회에 들렀다가 이곳 마을터에 반해 화산 서북쪽 향교골에 정착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회마을을 이루고 사는 류씨들은 풍산 류씨로서 본래 풍산 상리에 살았다고 한다. 풍수 지리설에 따라 지금의 양진당으로 옮겨와 집을 짓고 살기로 했는데, 양진당 터는 계란의 배반, 즉 병아리 씨눈에 해당되는 곳임을 뜻한다. 허

겸암정사, 옥연정 등 중요 민속자료와 건물이 있다. 양진당은 풍산 류씨 대종택으로 사랑채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높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보물 제306호로 하회마을 대표적 건물 중의 하나이다. 충효당은 평소 류성룡의 뜻을 따르고 그의 학식과 업적을 흠모하는 후학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역시 보물로 등록되어 있다.

영모각은 서애의 유물을 보존 전시한 건물로서 충효당 옆에 세워져 있다.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영모각에 들러 서애 유성룡의 선비적 그릇과 인간적 면모를 잠깐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는 징비록, 류성룡 종손가 문적, 류성룡 종손가 유물 등 각종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다.

매년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끄는 곳인 만큼 전통가옥 그대로 민박을 치는 곳도 있고, 마을 곳곳에 식당과 상점이 자연스레 어울려 있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기에 별 불편이 없다. 또한 마을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장승 조각전시장은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지만, 장승 조각 하나하나는 예술품이나 다름없다. 1000원이 안되는 입장료로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다. 낙동강이 휘감아도는 강변에는 부드러운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울창한 송림은 하늘을 향해 뻗어난 키를 자랑한다. 또한 물결의 흐름과 같은 모양으로 휘어진 마을 외곽 뚝방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고목 두 그루와 마주하게 된다. 포근한 할아버지의 품안에 안긴듯 고목아래 놓인 벤치에서는 연신 연인들의 속삭임이 이어진다.



• 안동마을길

씨, 안씨의 터에 비해 가장 영험한 터에 뿌리내린 결과인지, 이후 안동하회 마을 하면 풍산 류씨들의 집성촌으로 대변되고 있다.

현재 마을 중심부에는 류씨들의 집인 큰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위를 크고 작은 초가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다. 마을 앞쪽으로는 S자로 흐르는 낙동강과 강폭 맞은편에는 한 폭의 병풍처럼 마주선 부용대가 절경을 더해주고 있다. 주요 건축물로는 양진당, 충효당, 영모각 등이 있고, 마을과 인접해서 병산서원, 원지정사,

글·사진_ 김효용 | 여행작가



‘연산군 일기’ 중 한 대목을 대중문화 콘텐츠로

영화 ‘왕의 남자’



2006년 새해 충무로는 <왕의 남자>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제작비 44억원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해리포터, 킹콩과 같은 블록버스터나 이제는 ‘100억’대의 ‘억’ 소리 나는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들에 비하면 이 흥행속도는 눈 여겨 볼만하다. 더더욱 기본 좋은 건 관객들에게 관심 받지 못했던 사극을 도마위에 올려 놓은 감독의 능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왕의 남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

희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조선의 10대 왕 연산, 그리고 왕을 내세워 권력을 휘둘렀던 연산의 애첩 녹수와 함께 장생과 공길이라는 광대가 등장한다.

자신의 손으로 성종의 후궁을 죽이고, 조모 인수대비를 구타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으로 역사의 지탄을 받았던 연산군을 영화에서는 자신의 생모를 죽임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후궁들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새롭게 그리고 있다.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녹수 역시 왕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던, 어쩔 수 없는 비운의 ‘여자’로 그려진다.

한편, 오로지 자유롭기만을 원하며 줄 위에서만이 행복한 광대 장생과 여자보다도 더 수려한 외모를 가진 공길은 “공길이라는 광대가 왕에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는 들 먹을 수가 있으랴(60권 22장)’는 말을 하였다가 참형을 당했다.”는 연산군 일기에 의해

재생된 인물이다.

〈왕의 남자〉는 이들 네명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보다 더 미천한 신분이 있을까하는 광대들과, 더 이상은 오를 자리가 없는 왕 그리고 이를 넘보는 자들간의 쫓고 쫓기는 빠른 스토리 전개는 정확하게 재현해낸 조선시대 궁궐, 화려한 궁중의상들과 함께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영화를 위하여 직접 안성에 내려가 외출타기 보유자 권원태씨에게 즐타기를 배웠다는 감우성. 얼굴에는 흉측한 흉터 분장을 하고, 괴걸스런 입담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뿜는 그에게서는 더 이상 S대 출신 에리트 연기자란 타이틀을 찾아 볼 수 없다. 신인으로는 힘들법한 연기를 무난히 소화해 낸 이준기는 자신의 현대적 외모를 한 층 살려 내 공생이란 캐릭터의 어려운 심리표현을 잘 해 냈다는 평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무거운 이미지가 강했던 터라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정진영. 희대의 폭군을 관객들에게 어딘가 모를 애처로운 마음이 들도록 이끈 것은 그의 열연에서 빛난 것이리라. 그와 함께, 여지껏 TV 등에서 나타난 녹수와는 다른 특유의 요염함을 표현한 강성연 연기 역시 박수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광대 무리 유해진, 정석용, 이승훈과 처신 장항선의 주연보다 더한 조연들이 영화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극영화 흥행 신기록을 수립한 〈왕의 남자〉.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열연이 받쳐 준다면 우리 전통 사극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실례로 남을 것이다.

“왕을 가지고 노는거야.
개나 소나 다 왕 애긴데, 뭐 별거야?”

“왕께서 보고도 웃지 않으신다면
그땐 네놈들의 목을 칠 것이야.”



“이책대로 놀면 누가 웃는 겁니까?”
“너희는 왕의 광대가 아니더냐!”

줄거리

장생(감우성 분)은 남사당패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동료이자 하나뿐인 친구 공길(이준기 분)이 힘있는 양반들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해 공길과 함께 한양으로 향한다.

타고난 재주와 카리스마로 한양에서도 놀이패 무리를 이끌게 된 장생은 공길과 함께 연산(정진영 분)과 그의 애첩인 녹수(강성연 분)를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여 한양의 명물이 된다. 하지만 왕을 희롱한 죄로 곧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문초에 시달리던 장생은 특유의 당당함을 발휘해 왕을 웃겨 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왕 앞에서 긴장해버린 광대들은 왕을 웃기기는 커녕, 오금만을 저리는 상황을 연출한다.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 압전하기만 한 공길이 기지를 발휘해 연기를 선보이고 이에 왕은 못 참겠다는 듯 크게 웃어 버린다. 이들의 공연에 흠족한 왕은 궁 내에 광대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된다.

천민보다도 더 못한 신분으로 살아오던 광대들은 궁에 들어온 자체만으로도 신바람이 났다. 하지만 이도 잠시, 탐관오리의 비리를 풍자한 공연을 선보이자 왕만이 즐거워할 뿐 싸늘한 분위기만 맴돈다. 이를 감지한 왕은 중신 중 한 명이 웃지 않는다면 탐관오리라는 명목으로 형벌을 내리게 된다.

뒤이은 연회에서 광대들은 여인들의 시기로 인해 왕이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경극을 연기하게 된다. 연산은 같은 이유로 왕에게 사약을 받았던 생모 폐비 윤씨를 상기하며 진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선왕의 여자들을 칼로 베어 죽게 한다. 공연을 할 때마다 궁이 피바다로 변하자, 흥을 잃은 장생은 궁을 떠나겠다고 하나 공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겠다고 한다. 그 사이 왕에 반발한 중신들은 광대를 쫓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왕의 관심을 광대에게 빼앗겼다는 질투심에 험사인 녹수 역시 은밀한 계락을 꾸민다.

글 _ 김보라 기자

새로 나온 지역문화 연구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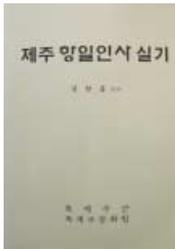


‘내 마음의 푸른 운동장’ |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한 생활문화 동화집.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식만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전국 각 지역에서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통해 바람직한 효(孝)정신을 확산하고자 어린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효 동화 모음집 ‘내 마음의 푸른 운동장’을 발간했다.

정채봉 선생의 ‘눈물 담은 도시락’을 비롯해 손연자 선생의 ‘종이 목걸이’, 강원희 선생의 ‘지워지지 않는 낙서’, 김은숙 선생의 ‘애기 반다’, 김병규 선생의 ‘백 번째 손님’, 윤수천 선생의 ‘행복한 지게’, 이준연 선생의 ‘아버지의 그림자’, 유효진 선생의 ‘검둥아, 너는 아들이가 딸이’ 등 부모님과 아이들의 가룩한 마음을 엮어 놓은 동화집으로 부모세대가 겪은 일로 부터 시작해 요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일

까지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그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말로 표현하지 못 하는 깊은 정이 배어져 있어 가족 교양 도서로 삼을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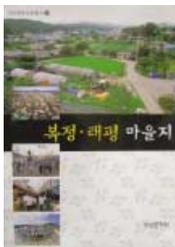
제주 항일인사 실기 | 북제주군 발행 / 김찬흠 편저

광복 60주년을 기해 제주지역의 항일인사들의 업적과 그 넋을 기리고 공훈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북제주문화원 김찬흠 원장이 직접 방대한 자료를 모아 집필했다. 제주 항일운동의 개요와 일제강점기 제주의 침탈상, 제주항일연지사, 제주항일인사 일람을 실고 505명에 달하는 항일인사의 행장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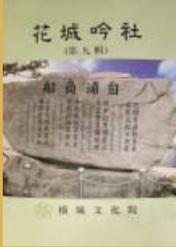
公州忠義列傳 (韓末以後) 공주충의열전 | 공주문화원 발행

훌륭한 인사를 많이 배출했던 공주의 보수적 인사들의 항일행적과 그의 자손, 문인들로 선비의 품위를 지키면서 후인들을 교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고 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순국으로 혹은 의병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가 하면 창씨개명과 식발색의를 거부하면서 온갖 수탈과 핍박을 겪고 항일의 중심에 서 있던 열다섯 분의 행적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북정·태평마을지 | 성남문화원 발행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남의 지역문화를 기록·보존·계승하고자 북정동과 창곡동·태평동을 중심으로 70년대 개발 전의 모습을 담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마을의 역사, 문화유적, 주요 기관과 시설, 세시풍속과 놀이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고 있다.



옥천읍지 | 옥천문화원 발행

읍지는 조선시대 지방 각 고을의 지지(地誌)인 동시에 지방사(地方史)이자 정책자료로서의 행정사례집이다. 옥천읍지에는 옥천군의 경계·도로·군명(郡名)·강계(江界)·조세·호구·성씨·토산·교통·고적·인물·관직·산천·풍속·사찰 등 옥천군의 모든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서 과거의 역사·문화·토산물 등의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초 자료로 당시 옥천의 문화와 생활상의 전반을 엿볼 수 있다.



한산모시 생활사 | 서천문화원 발행

모시를 삼아서 수십 년 동안 생업을 해온 사람들의 모시와 관련된 삶과 사건들을 녹취하여 책자화했다. 향토민속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기층민중의 생활사를 가감없이 수록하고 서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한산모시의 명성을 실체화하여 그 명맥을 이어준 사람들의 생활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산모시를 민속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선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 성남문화원 발행

옛날 광주군에 속했던 성남시는 광주이씨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그래서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도 탄천 이지직, 참의공 이극규, 참판공 이극기, 광원군 이극돈 등 조선초기의 광주이씨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그 행적을 고찰함으로써 향토인물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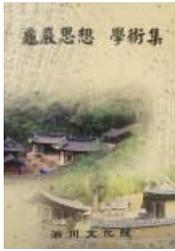
平澤漢詩 평택한시 | 평택문화원 발행

일제 강점기의 속박과 가난 속에서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학을 공부하고 한문을 사랑한 사람들이 모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택팔경을 예찬한 내용을 수록해 놓은 한시집이다. 60여 년 전 150여명의 평택한시 동호인이 남긴 유고를 모아 번역 발간한 것으로 시문 속에서 선인들의 고아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전남 무안지방의 방언사전 | 무안문화원 발행

전남 무안이 기업도시로 성장·발전하기에 앞서 급격하게 변화해 갈 도시화로 전통문화유산이 훼손, 유실되는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한데 모아 책으로 엮어내 세대간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무안을 중심으로 이 고장의 사투리를 모아 한글 자모순으로 엮어 발간했다.



龜巖思想學術集 구암사상학술집 | 사천문화원 발행

구암 이정(李楨) 선생은 조선 중기 사천에서 출생하여 사간원 대사헌, 홍문관 부제학과 영주, 선산, 청주, 경주, 순천 등 고을의 수장으로 청렴결백한 관직생활을 한 성리학자 토대 위에 행정실무를 쌓아 온 분으로 퇴계선생과 남명선생과는 또 다른 사유체계(思惟體系)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해 온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선 민요론 | 정선문화원 발행

앞서 정선 땅에서 살다 가신 분들의 생활이나 감정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민요 정선아리 등의 계승 유래와 그 배경, 정선 민요의 녹음조사 마을과 가창자, 정선 민요의 특색, 동요나 민요의 지역분포를 비롯해 다양한 민요의 작곡 작사에 이르기까지 정선 민요를 집대성해 놓았다.



時調唱概論 시조창개론 | 영동문화원 발행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4호 내포제시조 예능 보유자인 한우섭 선생이 시조의 이론과 실체를 체계화한 것으로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시조를 시조인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시조지침서이다. 내포제 악보와 석암제 악보 및 전국 50여 개에 달하는 관광사설 시조를 부록으로 실고 있다.



천안과 함께 한 역사인물 | 천안문화원 발행

삼국시대 이후 수많은 충신열사와 문장가, 무인호걸, 명관의 행적을 찾아 천안을 가꿔 온 역사인물을 조명함으로써 천안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천안의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선조들의 빛나는 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천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독립군으로 활동한 인사를 비롯하여 민족진영의 지도자 조병옥 박사와 청산리의 명장 철기 이범석 장군에 이르기까지 국난을 극복한 많은 애국지사들을 수록하고 있다.



약산 김원봉 장군 | 밀양문화원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원봉 장군은 1919년 의열단 조직과 함께 중국 일대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항일투쟁의 동량들을 양성하는 한편 많은 독립운동가를 지휘하는 등 조국 광복에 앞장서 온 분이다. 그동안 해방 60주년을 맞으면서 항일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김원봉 장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음을 안타깝게 여겨 장군의 일대기를 모아 출간했다.



舞乙 무을 풍물 | 구미문화원 발행

2백년 전 무을을 중심으로 자생한 무을풍물은 무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었다.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변형이 쉽게 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우려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연대별로 사진을 곁들여 풍물단의 유래와 특징, 복식, 악기 편성 등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全國漢詩白日場詩集 전국한시백일장시집 | 포천문화원 발행

지난 해 9월 포천문화원 주최 한음 이덕형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에 출품된 한시를 모아 장원 1수, 차상 2수, 차하 3수, 참방(參榜) 10수, 가작 10수, 선외(選外) 121수 등 총 250여 수를 수록해 놓았다.



白景文 백경문 | 태백문화원 발행

태백향토사연구소장과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백문화원 김강산(金剛山) 사무국장이 삼강(三江)의 발원지인 태백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소개하는 글을 한문으로 지어 사진과 함께 책을 펴냈다. 한문교육을 겸한 태백의 관광홍보 책자로서 명승지의 역사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잘 소개해 놓고 있다.



北軒集 북헌집 |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발행

당쟁이 극심하던 조선사회에서 서인노론의 중심 가문에서 태어났던 북한 김춘택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생애도 늘 당쟁의 와중에 있었다. 6년동안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해야 했던 북한의 유배 생활 중 시문만을 발췌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팔공산의 문화유산 팔공문화원 발행

지역 유형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재의 접근성 도모라는 차원에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팔공지역의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보존·계승·발전시키고자 각종 유물의 컬러 판 사진과 설명 도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싣고 있다.



重訂 南漢志 중정 남한지 | 광주문화원 발행

1846년(조선 헌종 12년) 광주유수 홍경모가 2년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848년에 간행한 광주의 지리지이다. 광주의 향토사는 물론 조선 후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행정, 풍속, 세제 등 모든 분야의 실상을 파악케 하고 특히 임진·병자 양란에 관한 기록과 백제 시조의 도읍지에 관한 기록은 소중한 사료로 전해진다. 남한지 원본과 국역본을 함께 발간하였다.



旌義郡誌 정의군지 | 남제주문화원 발행

정의현은 한라산 남쪽의 성읍민속마을과 서귀포, 성산포일대로서 동서남북이 각각 1백여리의 면적을 배경으로 조선 태종조에 세워 1900년대 초까지 존속해 왔다. 지금도 향교 터를 비롯해서 단과 각 관청의 터가 여러 곳에 걸쳐 남아 있다. 이 책은 정의현의 연혁과 누정(樓亭),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 공납(貢納)과 요역, 학교, 사단(社壇), 풍속과 산업, 고적 등의 많은 자료를 싣고 있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866
주 소 : 서울시 중구 필동1가 21-16
메리트빌딩 3층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866 서울시 중구 필동1가 21-16
메리트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January · February 2006 Vol.180

우리말 우리속담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든다

올해는 눈이 ‘징하게’ 내렸다.

우리네 속담 중에는 계절과 관련한 재미난 속담들이 많다. 눈과 관련해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와 같은 속담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보리를 푹 덮게 되면 오히려 보온이 되어 보리가 얼어 죽거나 고사되는 일이 없어져 풍작을 이루게 된다는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속담이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이 든다’는 동지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워야 병해충이 얼어 죽게 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을 가진다.

특히나 농업이 주업이던 예전, 경험에서 배어나온 속담들은 두루두루 구전되며 비범처럼 전수되었으리라.

‘장마 끝물의 참외는 거저 줘도 안 먹는다.’와 같은 속담이 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과일 맛도 떨어지게 마련. 장마 뒤에 먹는 참외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빗물로 인해서 썩는 참외도 많고, 물이 많아서 참외의 단맛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이 단물 빼먹고 껍데기라도 먹으라고 주는 어떤 거래 형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사계절 가운데 몸과 마음이 가장 넉넉해지는 가을. ‘가을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일손이 모자라는 가을엔 손만 조금 거들면 먹을거리가 생겨 배 두둑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욕 또한 왕성한 가을을 두고 ‘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고 했으며, 가을철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아욱국이었는지 ‘가을 아욱국은 제 계집 내쫓고 먹었다’,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는 속담도 있다. 한편 가을은 일손이 가장 아쉬웠던 계절이라 ‘가을 들판에는 대부인 마님도 나셨다’, ‘가을철에는 부지깥이도 저 혼자 편다’는 속담이 있으며 심지어 ‘가을 들판에는 송장도 텅빈다’는 말도 입에 오르내렸다

‘봄비는 일 비고, 여름 비는 잠 비고, 가을비는 떡 비고, 겨울 비는 술 비다.’는 봄에는 비가 와도 들일을 해야 하고, 여름에는 비교적 농한기 이므로 비가 오면 낮잠을 자게 되고 가을비는 햅쌀로 떡을 해먹으며 쉬고, 겨울에는 술을 먹고 즐긴다는 뜻이다.

워낙 살림살이가 어려웠던지 선인들은 풍요로운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꼼꼼함도 보인다. 풍성한 가을에 곡식을 절약하고 춘궁기를 넘긴다는 뜻에서 ‘가을 곡식을 아껴야 봄 양식이 된다’, ‘가을 죽은 봄 양식이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글 _ 김보라 기자